금주의 기도

해가 바뀌어도 어둠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무릎 꿇는 이 자리가 예언자적 상상력이 가득한 설렘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1년 1월 16일 (토) 제 1809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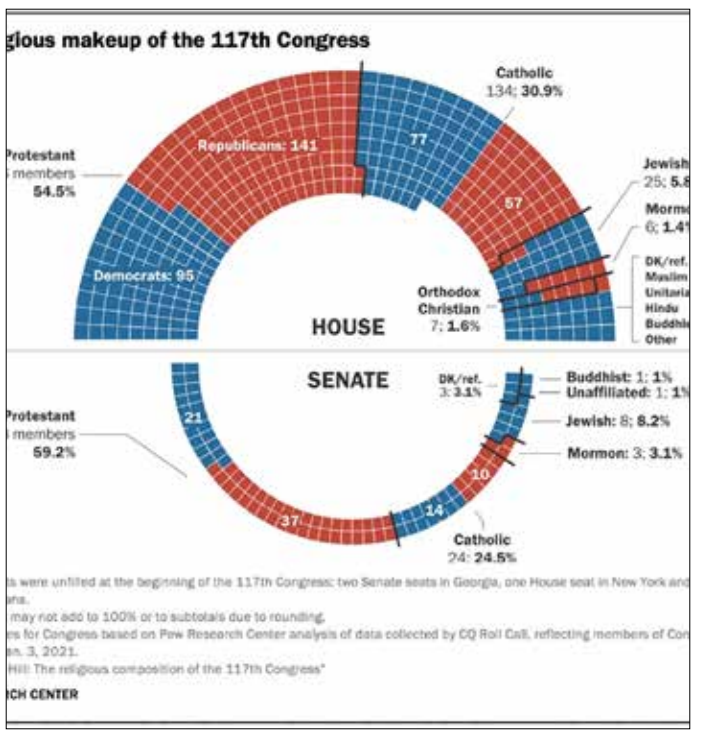
2021년 국정운영 하나님과 함께 한다!

퓨리서치, 117차 미 상하원 종교구성비율 조사...크리스천 압도적

정치인들의 신앙과 관련하여 117차 미 의회는 116차 의회와 엇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인과는 상당히 다르다.

미 성인의 약 4분의 1(26%)이 종교적으로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별한 것이 없음"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이번 의회(Sen. Kyrsten Sinema, D-Ariz.)의 한 구성원만이 종교적으로 무신론자라고 밝혔다(0.2%).

그리고 미국인 중 2/3(65 %)에 비해 거의 10명 중 9명의 의원이 크리스천(88 %)이라고 답했다. 결국 117차 미 의회는 미 전체 성인 인구보다 개신교(55% 대 43%)와 가톨릭(30% 대 20%)이 더 많아, 신앙을 통한 정치적 행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Faith on the Hill: The religious composition of the 117th Congress).



상하원 의원들은 또한 평균적으로 미 성인보다 나이가 많다. 116차 의회가 시작될 당시의 평균 연령은 57.6세였고, 이번 상원 의원은 평균 62.9세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의 성인이 일반 대중보다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미 성인 중 50-64세 연령대 중 74%가 크리스천이고, 18세 이상에서는 65%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의회는 평균치 74%를 훨씬 상회하는 88%의 크리스천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몇 차례의 의회에서 소속 교단을 추가로 명시하지 않고 자신을 개신교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회원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범주에는 현재 96명의 의원이 있다(18%). 퓨리서치센터가 처음으로 의회 구성원의 종교적 소속을 분석한 111차 의회에서 39명의 구성원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7%).

같은 기간 동안 의회의 총 개신교인 숫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111차 의회에는 295명이었고 현재는 294명이다. 교단을 명시하지 않은 개신교인의 증가는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와 같은 교단 소속과 동일시된다.

거의 모든 비기독교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3일,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한 261명의 공화당원 중 3명(1%)만이 자신들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두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종교적 소속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기독교인이 아닌 63명의 의원의 경우, 유태인들이 33명으로 계속해서 지난 몇 차례 의회에서와 같이 비교적 안정된 수치다.

다음으로는 비기독교 그룹은 종교적 소속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117차 의회에는 이 범주에 18명이다.

116차 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명의 무슬림 의원이 117차 의회로 돌아왔다. 불교도 역시 2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인구는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미 의회는 최근 몇 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크리스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장 먼저 상하원 의원들의 신앙 분포도를 조사한 1961년 87차 의회에서는 95%가 크리스천들이었고, 당시 미국인들 중 약 93% 크리스천들이었다.

1960년대 초반 이래로 크리스천으로 식별되는 미 성인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지만 국회의 의원 비율은 7포인트만이 감소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의회의 88%가 크리스천이고 미 성인의 65%가 크리스천이다.

한편 목회자 출신의 미 하원의원이 지난 3일 새 회기 개원을 시작하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멘(amen)'뿐 아니라 '에이워먼(awoman)'이라고 마무리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주리주의 9선 연방 하원의원인 이매누얼 클리버(76)는 이날 제117대 의회를 출범하며 시작한 의원들의 취임식 기도에서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흐만(Brahma), 다른 많은 신앙에서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 '신(god)'의 이름으로 구합니다(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라며 "에이멘, 에이워먼"이라고 마쳤다. 에이먼은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온 말로, 성별(性別)과는 무관하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은 트위터에 "아멘은 성별적인 단어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진보주의자들은 사실엔 관심이 없다.

〈3면으로 계속〉

불확실성 안고 가는 2021년....

이코노미스트, 2021년에 주목해야 할 10가지 트렌드 소개

"2021년" 21은 운, 리스크, 내기와 연관이 깊은 숫자다. 주사위의 점 개수가 총 21개고, 경마나 내기의 화폐단위 1기니는 21실링이다. 미국에서는 카지노 출입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21세고, 블랙잭을 포함, 인기 있는 카드 게임의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2021년에 기묘하게도 어울리는 것 같다. 가장 큰 기대는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겠다. 동시에 보건과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정과 관련해 다양한 리스크가 산재한 해이기도 하다.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열 가지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준다(The World in 2021: Ten trends to watch in the coming year).

1. 백신을 둘러싼 전쟁: 백신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백신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이다. 누가, 언제 백신을 맞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는 치열한 백신 외교가 벌어지고, 국가 내부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와일드카드도 남아 있다.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이다.

2. 엇갈리는 경기 회복: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다. 지역마다 확진자 발생과 감소가 반복되면서 각국 정부는 기업에 생명유지 장치를 다는 것부터 실직한 노동자들을 돕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탄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다.

3. 신세계 무질서의 수습: 백악관에 입성한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국제 질서와 규범들을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까? 출발점은 파리기후협약과 이란 핵 협상일 것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 론 최해근 목사

4면 푸른초장 김풍운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2021 HAPPY NEW YEAR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홍 담임목사
신년축복성회
"인생역전을 이루라!"

김병삼 목사
LIVE www.gracemi.com
일시: 2021.1.21(목)~24(주일)
목 7:30pm, 금 5:30am, 7:30pm
토요일 6:00am, 7:30pm
주일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강사: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본당(온라인예배)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3:3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4:00(토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4:0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 발행인 칼럼 ●

사라는 여기 없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사라는 여기 없다. 아내 사라가 없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 사라와 같이 테이트 할 수 없다. 아침에 함께 티(tea)를 마시면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그들의 오랜 여정 이야기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아브라함의 슬픔과 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창세기 23장 2절은 이렇게 일러준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잘 들어보시라. "슬퍼하며 애통했다. 오래오래.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었다"가 아니다. 3절에 계속된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은 슬픔을 딛고 일어났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였고 자신의 그 믿음이 옳았음을 생생히 경험했다. 여기 있던 분들이 지난 한해를 지나면서 이제는 여기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 분들을 다시는 가정이나 병원으로 심방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에 다시 오실 수 없다. 놀랍고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은 사라처럼 여기 없는데 사라처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다는 것이다. 사라의 없음은 부활의 있음을 알려준다.

사라는 여기 없다. 엄마 사라가 없다. 학교 갔다 돌아와도 나를 맞아줄 사라는 없다. 저녁을 지어놓고 내 이름을 부르며 "와서 밥 먹어라" 말할 사라는 없다.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 이사라 집사님은 여섯 살 반이 된 나를 두고 떠나셨다. 4월 어느 날이었다. 어머님의 장례식 때에 그 날 나는 춤을 추었다. 한 손에는 개나리 한 손에는 진달래를 꺾어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다고 훗날 어른들이 들려주었다. 내가 너무 조숙(早熟)했나? 그 나이에 벌써 성도의 죽음을 축제로 이해했다는 말인가. 사실 어머니의 죽음을 슬픔과 애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어렸다. 나의 어머니 사라께서 사라지신 후, 나는 천국이 너무 그리웠다. 사라, 그 분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곁을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나셨냐고 물어볼 요량(料量)이었을까. 놀랍고 분명한 것은 어머니 사라는 여기 없으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계시다는 것이다. 사라의 없음은 임재의 있음을 알려준다.

사라는 여기 없다. 딸 사라가 없다. 지난 12월 23일. 사라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스물 네 살의 사라는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언니와 동생 그리고 우리 모두를 뒤로 한 채 떠났다. 이 땅에서 그 다섯 식구가 같이할 식탁은 이제 없다. 어디론가 여행할 때 모두 같이 가도 이제는 넷 밖에 없다. 간호사였기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해야할 그는 그 날,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돌볼 환자가 아무도 없는 천국에서 깨어 일어났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자녀의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도 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 고통을 친히 맛보셨다. 나는 몇 날 동안, 사라 부모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다. 그 슬픔과 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놀랍고 분명한 것은 짧은 삶을 마감한 사라는 여기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사라의 없음은 구원의 있음을 알려준다.

사라는 여기 없다. 아내 사라도 없다. 엄마 사라도 없다. 딸 사라도 없다. 사라의 빈자리는 크다. 그러나 사라의 없음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없음이 오히려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 있다. 사라의 없음은 환히 보여준다. 부활, 임재 그리고 구원을. 아~ 나의 사라는 어디 있나. 혹 나의 사라가 여기 없다하여도 슬퍼하고 애통하지만은 말자.

10초내 Z세대 마음 붙잡아 부흥의 불 지펴라!

CT, Z세대 복음화 위한 크리스천 틱톡 사역 현장 소개

게이브 프와로가 길에서 카메라를 향해 달려오며 외친다. "잠깐, 잠깐만요, 스크롤 하지 마세요!!" 그의 긴박한 목소리 때문에 스크롤을 멈춘 사람은 그의 동영상을 보게 되고, 60초 동안 축복 기도를 받게 된다. "#MakeJesusViral"이라고 새겨진 핑크색 운동복을 입고 카메라 프레임에 가득 얼굴을 들이민다. "오늘 당신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프와로는 진지하게 말한 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다.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폰 저편에 있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19세의 프와로는 케니스 코플랜드 바이블 칼리지 학생인데, 소셜 미디어 틱톡을 이용해 짧은 설교를 하거나 시청자를 위해 기도하는 클립을 공유한다. 틱톡은 "추천For You동영상"을 연이어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처음 몇 초 안에 관심을 끌지 못하면 유저들은 쉽게 페이지를 건너뛸 수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프와로와 같은 틱톡 복음전도자들의 사역을 소개한다. 즉 앱의 영상과 음악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혼의 스크롤' 사역 현장을 보여준다(Meet the TikTok Generation of Televangelists: These young influencers want to #MakeJesusViral).

성공비결은 주 이용자층이 Z세대...콘텐츠 집중시간 8초 불과
모바일로만 접속, 라이프스타일 동영상 블로그 통해 팔로워 확보

틱톡은 Z세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 중 앱 중 하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미 인기가 높았던 틱톡의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급증했다. 실제로 2020년 3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1.15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진행됐다.

많은 연예인들 또한 틱톡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드레이크(Drake)는 새 싱글의 발표를 앞두고 틱톡과 같은 짧은 형식의 앱(Short-form App) 플랫폼에서 유행할 춤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스타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을 정도다.

틱톡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주 이용자층이 Z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 세대 특징은 한 콘텐츠에 집중하는 시간이 다른 세대보다 짧다. 밀레니얼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한 콘텐츠에 집중하는 시간이 12초라면, Z세대는 8초에 불과하다.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짧고 인상적인 영상에 이들 세대가 끌리는 이유기도 하다.

모바일로만 접속할 수 있다는 점도 성공 요소로 꼽힌다. 이는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다른 경쟁 플랫폼과 차별점이다. 틱톡은 모바일로만 영상을 만들고 게재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UX/UI)를 구현하는데 집중했다. 굳이 가로로 스마트폰을 돌리지 않고, 세로로도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틱톡에는 청소년 그룹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가 많다. 예를 들자면 카디비와 메건 더 스탤리언의 뮤비 "WAP"라던가 알몸으로 방을 왔다 갔다 하며 파트너들의 반응을 찍은 동영상 스트리밍이 그러하다.

따라서 프와로의 콘텐츠 같은 일명 "크리스천 틱톡"은(또는 래퍼 카니예 웨스트가 권하는 "지저스 톡"Jesus Tok은) 틱톡에서는 서브 장르에 속한다.

크리스천 틱톡 인플루언서들은 짧은 설교, 요즈음 유행인 댄스 챌린지의 클린업 버전, 베스트 성경공부법, 심지어 요가에서 힌두교적 요소를 배제한 스트레칭 등을 포스팅 한다.

젊은 콘텐츠 제작자의 다수가 Z세대, 곧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에 부흥의 불을 지피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2020년 초에 틱톡은 분기별 최다 다운로드 앱으로 전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총 200억 회 넘게 다운로드 됐다. 틱톡이 이처럼 유명세를 타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유저의 히스토리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새로운 동영상을 제시하는 AI 알고리즘이다.

틱톡은 MAU(한 달 동안 해당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의 수) 8억을 기록하면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로서 자리매김했다.

틱톡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앱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해 이용한다는 것 외에도 어느 소녀의 낙태인증 동영상, 자살 영상 등이 마구잡이로 유포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프와로(@gabe_poirot2) 같은 크리스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복음전도를 위해 손쉽게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 틱톡을 활용하고 있다.

틱톡은 그들의 노력에 보상해준 것 같다. 프와로는 자신의 두 계정에 동영상을 포스팅했는데 팔로워가 55만6,100명이나 된다. 동영상에는 강렬한 빨간색에 흰색테두리 글꼴을 사용해"크리스천들이 뭉칠 때입니다"ITS TIME FOR CHRISTIANS TO UNITE라는 캡션을 달았다.

프와로의 동영상 시청자들은 나이가 어리다. 2019년에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의 41%가 16-24세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4세 미만의 데일리 유저 수는 약 1,800만 명이다.

틱톡이 차세대 대중 설교자들(populist preachers)을 양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대중 설교자들은 앞 세대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밝고 환한 미소에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매체의 속성을 꿰뚫고 있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경시,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독서, 묵상, 교제가 가능한 고품격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21년 봄 학기 입학안내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제 출 서 류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 2매
❻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❶ 원서접수마감 : 2021년 1월 29일(금) 오후6시
❷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❸ 입 학 시 험 : 2021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❹ 개 강 부흥회 : 2021년 2월 1일(월)-2월 3일(수) 저녁 7시45분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718)463-7163
학감 허윤준 목사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 성 국 박사

2021년 국정운영, 하나님과 함께 한다!

〈1면에서 계속〉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공격했다. 보수적 여성 정치평론가인 베다니 맨덜은 "우리를 (임신부 대신에) '임신한 사람(pregnant people)'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라고 비꼬았다.

37년간 목사로 재직했던 클리버 의원이 또 기독교의 유일신과 힌두교의 브라흐만, 온갖 종교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동일시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보수적 기독교계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이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낸시 펠로시 의장 주도하에 새 운영규칙에서 "모든 성(性)정체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로 했다. 즉 '아빠' '엄마' '아들/딸' '형/누나'와 같이 남녀가 드러나는 단어 대신에, 'parent' 'child' 'sibling' 같은 단어를 쓰기로 했다. 클리버 의원의 '에이워먼' 기도 역시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불확실성 안고 가는 2021년....

〈1면에서 계속〉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이전이었고, 그 여파는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4. 미중 갈등: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길 원할 것이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5. 기업들도 전장의 전선에: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전선에는 기업들이 있다. 화웨이나 틱톡처럼 드러나는 예가 아니어도, 많은 기업이 지정학적 전장이 돼가고 있다. 기업들은 위에서부터의 압력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압력에도 직면하게 됐다. 정치인들이 행동을 보이지 않은 사회정의나 기후변화 부문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주와 직원, 고객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 테크 열풍 후: 2020년 재택과 가정 학습, 화상회의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됐다. 많은 변화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남고 어떤 것들이 과거로 돌아갈지 2021년에는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7. 발이 묶인 세상: 관광분야는 축소되고 여행업계는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항공사와 호텔 체인, 항공기 제조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유학생 의존도가 높던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교류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

8. 기후변화 해결의 기회: 위기 속에서 밝은 면을 굳이 찾자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역설적으로 마련된 점을 들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녹색회복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9. 데자뷰: 해가 바뀌었지만 여러 면에서 2021년은 2020년의 2탄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연기된 올림픽과 엑스포를 비롯해 연기된 정치, 스포츠, 기업 부문의 이벤트가 2021년 개최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10. 다른 리스크들: 팬데믹 와중에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항생제 저항이나 핵 테러리즘과 같은 문제로 정책입안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10초내 Z세대 마음 붙잡아 부흥의 불 지펴라!

〈2면에서 계속〉

그뿐 아니라, 이전 세대의 순회 부흥사나 TV 복음전도자들처럼 크리스천 틱톡 스타들도 거짓 교사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하고, 자기 홍보와 복음전도 사이의 균형도 유지해야 한다.

초창기부터 종교 방송사들은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사회학자 제프리 K. 하든은 "미국 정치·사회과학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방송사들은 전도 프로그램의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특히 오럴 로버츠와 짐 바커 같은 번영신학의 선도자들은 금세 채널을 장악했고, 마침내 자체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만들었다.

오늘날 저명한 목사와 성경 교사들이 온라인 설교로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면 풀뿌리 크리스천 동영상 인플루언서들은 라이프스타일 동영상 블로그를 통해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 웨딩 영상 제작자 네이크와 서튼 아이젠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데이트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세계여행을 담은 영상을 제공한다.

이들은 베스 무어의 리빙 프루프사역원(Living Proof Ministries)이나 팀 켈러의 설교채널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복음주의신학을 공부하는 캔디 군터 브라운에 따르면 크리스천 틱톡 스타들은 플랫폼을 부흥을 위한 잠재적 수단으로 본다. 이들은 "문화가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될지 진단한 후 그것에 뛰어오른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의 부흥운동가들과 맥을 같이 한다.

프와로는 4월에 처음 틱톡을 시작했다. 기독교 코미디 콘텐츠를 주로 포스팅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포스팅한 동영상 가운데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조회 수 5만을 기록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기 원합니다.

[알림] 1월 9일자는 본지 정기휴간에 따라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시 론

띠가 어떻게 되세요?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그 해에 해당되는 띠와 관련된 동물이 언급됩니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으로 소띠입니다. 별 의식 없이 소띠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최근 어떤 신앙인으로부터 띠와 관련된 강력한 거부의 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력하다 못해 신앙인으로서 띠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즉 12지간과 해당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인으로서 띠를 언급하거나 사용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집안 친척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사람의 띠를 기억하는 것은 훨씬 더 쉽고 오래갑니다. 나이는 해마다 바뀌지만 그 사람의 띠는 늘 동일합니다. 그러다보니 띠를 알고 있으면 구체적인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분명히 연령계산과 관련되어서는 띠만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인들이 띠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나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支)가 가지고 있고, 현재 사용되는 실제적인 영역을 점검해보면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12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표기되는 12가지로 고대기록에서는 시간을 표기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다가 시간뿐만 아니라 방향을 표현하는데도 사용됩니다. 즉, 자(子)가 시간의 시작으로 밤11시부터 새벽1시까지이고, 방향으로는 정북 방향이 되며, 축(丑)은 시간적으로는 새벽1시-새벽3시까지이며 방향을 표시할 때는 동북쪽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런 표기법은 3천년 전에 사용된 갑골문자에서도 병자(丙子), 을해(乙亥) 등과 같은 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세기경에 이르면 12지(支)에다 12가지 동물을 배정하게 되는데 자(子)를 쥐, 축(丑)을 소, 인(寅)을 호랑이 등과 같은 동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子)가 쥐를 의미한다던가 혹은 묘(卯)가 토끼를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운명과 시대를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12지에 해당되는 12짐승은 서서히 신(神)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와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특히 불교의 영향력으로 시간신과 방위신으로 표현됩니다. 12지를 통해 특정한 방향을 표현하던 것을 넘어 그 방향에서부터 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짐승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2021년은 신축년으로 '축(丑)'은 '소'를 가리키며, 방향으로는 동북쪽을 가리키는데 그 동북쪽에서 오는 사악한 기운을 소가 막아준다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면 12지간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띠'가 단순히 나이계산을 넘어 영적인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띠를 단순히 특정한 년도나 나이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그 이상은 피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역사자료를 읽다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처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12지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 띠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운세를 본다든지 특정한 방향으로부터 사악한 기운이 임한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흐름에다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방향, 곧 우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샬롬!

thechoi82@yahoo.com

세계선교교회는 MCUSA(Missionary Church USA) 교단에 속한 출석 인원 약 150명 정도로 올해 48주년을 맞이할 교회로서 지난해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성격이 온유하며 부지런하고 장년부와 EM등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인도 할 목회자 이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자격

- 나이 45세이상 55세이하
-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목회 경력 5년이상(부목사, 교육/행정 목사 포함)
- 본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 2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 하신 분
- 결혼하여 가정이 있으신 분
-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자

서류 제출: 1차

- 한/영 이력서 사진, e-mail 주소 포함)
- 가족 소개(사진 포함)와 간단한 사모의 경력 소개
- 신앙고백과 목회 비젼서

서류 제출: 2차

- 학위 증명서(대학, 대학원)
- 목사 안수 증명서
-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2명 이상)
- 시무 교회의 주보 (3주 정도)
- 1차, 2차 서류 검사 후 최근 설교 영상(20분 정도 MP4 File format, 1080x720p) 또는 면담과 초청 설교를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마감 - 2021년1월31일까지
서류 제출 방법
등기우편이나 본인이 직접 교회 사무실에 제출 (봉투에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제출된 서류나 영상에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1,2차 심사 후 e-mail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주 소: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ph: (213) 388-1927

강 석건 장로: (310) 713-6699, kingkang213@gmail.com

교단 : http://www.mcusa.org 교회: http://www.wmcla.com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분실된 퍼즐, 분실된 한 영혼

패밀리 액티비티로 아빠랑 무엇을 같이 할까 고민하던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0조각 직소 퍼즐 2개를 사왔습니다. 저는 "어느 세월에 1000조각 퍼즐을 맞추느냐, 아빠는 시간 없으니 너 혼자 해라"며 퍼즐 맞추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1000개의 퍼즐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고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부녀는 저녁식사 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녀들과 함께 직소퍼즐을 맞추어 보셨나요?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면 우선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비슷한 색깔, 비슷한 무늬, 비슷한 모양에 따라 조각들을 분리합니다. 분리 작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바깥 테두리부터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맞추다 보니 직소퍼즐이 거의 끝나갑니다.

저와 딸은 흥분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림 한 가운데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다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강아지 뽀리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뽀리는 처음부터 퍼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퍼즐 조각 몇 개를 물어서 자기 방석에 갖다놓기도 하고, 퍼즐 한 조각을 반쯤 씹어 놓은 적도 있는 상습범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조각도 뽀리가 씹어 삼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직소퍼즐에서 분실된 한 조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00개의 퍼즐 조각 중에 한 조각은 아주 작은 수입니다. 또한 이 조각은 아무런 디자인이 없는 단색이라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가장자리 조각처럼 비중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시선은 전체 그림이 아니라 분실된 한 조각이 남긴 빈자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한 조각 때문에 전체가 미완성입니다. 결국 저와 딸은 분실된 조각으로 인해서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의 흠집을 새 식구 뽀리의 작품에 대한 기여로 간주하기로 하고 미완성된 퍼즐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직소퍼즐에서 한 조각의 망가진 퍼즐, 분실된 퍼즐은 전체 그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분실된 조각을 찾으려는 노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은 어떻습니까? 망가진 영혼,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아무리 많아도, 한 조각만이라도 분실되면 전체 그림이 미완성이듯이 우리들 중 한 지체가 방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분실되어 있습니다. 분실된 퍼즐 조각을 끝까지 찾아서 짝을 맞추어야 직소 퍼즐이 완성품이 되듯이...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상처입은 영혼들, 거듭된 실패로 망가진 영혼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망가졌던 나, 방황하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 나라의 분실된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

창세기 1장 31절

생애에 처음 겪어보는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었던 일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23절을 보면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며 날마다 우리들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2021년 한 해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짐을 져 주시며,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후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시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들 모두의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루, 심히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살기 위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소개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날마다 한 일을 묵상하고 실천하므로 우리들의 일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루하루로 채워졌으면 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다윗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는 그러한 중에도 '나는 날마다 감사하므로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다윗은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므로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하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 고통하고 있을 때 자신이 찬양하면 그 악신이 떠나가던 체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던져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닫아놓았습니다.

무디 목사님 전도사역의 찬송인도자였던 쌩키의 경험은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 중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여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쌩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 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지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달밝은 밤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쌩키의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므로 찬송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우리들의 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편을 선택하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삽시다!

둘째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런 일 외에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인가요? 사십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번 돌에 맞고 세 번 파선하고 밤낮 하루를 바다에서 헤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겪고 여러 번 주리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였으니 진정 그는 죽도록 충성한 주님의 일군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기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힘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행2:46),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으며(행5:42),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묵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날마다 최선을 다한 종들과 게으른 종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어진 하루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카네기가 은퇴할 때 찰스 스왑이라는 무명의 인물을 후계자로 지명함으로 세상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그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를 보면 수긍이 갑니다. 찰스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청소부로 입사하여 충성을 다하였는데 정원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청소하였답니다. 그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근무 태도를 좋게 여겨서 정식사원이 되고 나중엔 사장의 비서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의 앞날에 대해 연구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 보니 그 때까지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놀라서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당연한 듯 대답하였답니다. 찰스의 하루가 카네기가 보기에 너무 좋았기에 귀한 상을 준 것처럼 우리들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하루가 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날마다 반성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밤마다 내 심장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반성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자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반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날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말마다 자기를 반성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반성은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매일 책상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선친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생긴 습관이라고 하십니다.

존 번연은 하루에 두 번 반성하였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너는 언제,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 저녁에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오늘 어떤 일을 했나? 무엇을 말했나? 잘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소망을 얻을 때까지 잠자지 마라."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다윗처럼 번연처럼 철저하게 반성하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침소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시며 웃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월(January)은 두 얼굴을 가진 로마의 신인 야누스(Janus)에서 따온 단어라고 합니다. 머리 하나로 과거를 돌아보며 다른 하나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과 지난 날을 돌아보며 2021년을 바라보고 출발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받아 살 때에 (1)날마다 감사하므로 찬양하고 (2)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3)날마다 반성하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wkim529@gmail.com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NYU 의대 훼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2020 미대선 이후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시46:10)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너무 빠르게 돌아다니는 선동적 소식들로 인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날카롭게 분별하되 몸된 지체들을 포용하며 주님의 진리는 온전히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기다리며 다음단계를 전략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 중 어느 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전체적인 정책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적인 정서가 양당 모두에게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던 것이 오바마 정권 때부터 급격히 탈 헌법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 및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정강(platform)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급기야는 미국사회 전체가 도덕적 위기와 자유 민주주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한 가지 예는 바로 공립학교의 정치적 혁명입니다. 공립교육이 정치 정당의 성향에 좌우된다는 것은 포르노수준의 성교육, 70개가 넘는 성별 젠더교육, 무분별한 낙태지지수업, 학부모권리 무시하는 수업 등등 정치적으로 세뇌하는 교육들이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새해 117차 의회에서의 새해 첫 기도는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감리교 목사인 임마누엘 클리브랜드 의원이 대표로 했는데, 힌두교신과 모든 신에게 기도한 후 "A-men과 A-woman"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또한,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와 쳑 슈머는 새해부터 중요하다고 프로포즈한 정책이 바로, 의회 공식 모임에서는 "엄마, 아빠, 여동생, 오빠, 누나 등등"의 성별/젠더를 밝히는 단어는 금지하는 것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What's Next?

첫째,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어떤 형태로든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절반이상의 시민들, 75Millions의 시민들 목소리이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Election Integrity가 바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기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선거부정 배후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과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1월 6일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 일뿐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별히 미국 안에 깊이 뿌리내린 CCP 중국 공산당은 꼭 뿌리째 뽑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수진영과 공화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2022년에 치룰 상원 선거입니다. 2022년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는 전체 상원의 100석 중 34석에 대한 선거를 하게 됩니다. 30%가 넘는 큰 비중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승리한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뽑게 될 34석의 상원의원 당별 구성은 현재 공화당-20, 민주당-14이기에 "지혜"롭고 "신실한" 리더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이크 펜스는 진정 배신자인가?

저희단체는 미국 법률팀들과 파트너한지 오래되며, 이번 일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나눕니다. 정답은… 배신자가 절대 아니다! 입니다.

1. 사방팔방이 이미 막혀버린 상황-부정선거가 있던 6개의 주정부들의 부당한 입법부의 판결들, 공화당 기득권들과 주지사들의 이어지는 진짜 배신! 그로인해 미연방 대법원도 텍사스가 올린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거절함으로 모든 법정들이 다 반대편에 서 있는 상황!

2. 헌법전문가들의 "wish"와 "legal 법적효력" 설명이 확인해줍니다. 공화당 쪽에서 12월 말에 펜스부통령의 헌법적 "권리, right"를 1월 6일에 "fully" 줌으로 그가 대선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법정에 소송을 했으나 법정에서 그 결론이 미처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펜스부통령도 스스로 철두철미하게 여러 번 다른 방법이 헌법적으로 있는지 알아봤지만 현 상황에서는 헌법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제한돼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을 뿐입니다.

3. 만에 하나, 펜스부통령이 stretch해서 억지로 대선 결과를 뒤집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 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미국을 뒤흔드는 대가이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좌파 쪽의 Antifa, BLM은 새해에도 대도시에서 "Death to America"를 외치고 있으며 이들은 좌파 정치인들과 큰손들에 의해 돈으로 고용되고 보호되는 운동조직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부통령은 이미 좌파세력의 공격을 계속 받아왔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75millions의 시민들까지 "마녀사냥"과 "협박'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임을 안 것입니다.

따라, 원리원칙자며, 헌법주의의며 신실한 성품의 펜스가 "배신자"라는 욕을 먹을 줄 너무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내다보고 시민들을 보호한 것이며, 비록 트럼프가 겉으로는 펜스에게 실망했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에 대한 "배신자" 언급은 Linwood 변호사 트위터에서부터 시작되어 신속히 우파뉴스들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Linwood 변호사 글을 통해 여러 루머들(군사개입, 계엄령 등등)이 곳곳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트럼프대통령 insider 쪽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Linwood 변호사는 트럼프 직속 변호사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며, 그를 안 것도 저희 단체도 3개월 안팎입니다. 거기에 비해 마이크 펜스부통령은 지난 4년 그리고 그의 전체 전력은 이미 그의 신실과 충성심을 검증해준 것에 비해 Linwood 변호사는 검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Linwood의 선동적인 메시지들을 확인 없이 나누는 것은 같은 팀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선한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같은 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정의의 선한싸움은 전략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부통령 그리고 선두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애국 의원들과 그들의 가정들이 좌파로부터 계속 받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그들이 지치지 않고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힘을 얻도록 매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늘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며 지나치게 꿈을 의존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여 너무 주관적인 꿈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의존하여 행동하라고 충고하였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다우니의 Paul Kang

A: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나 바로 왕의 꿈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히1:1-2). 지금도 꿈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무시할 순 없으나 꿈만 따라 간다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이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는 그의 "성경신학"이란 책에서 "첫째로 인간은 자력과 자율로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오직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계시의존사색으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형벌을 받음으로 그 지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나이 45세가 되자 원시가 왔는데 안경점에 가서 리딩

오늘날은 완성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

글라스(Reading glass) 맞추어 원시안경을 쓸 때 글이 환히 보였습니다. 원시나 근시, 난시가 있는 눈이 나쁜 자는 자기 앞에 놓인 신문의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경을 사용하여 볼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경과 같은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이 자연계시(자연,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존신학은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일반계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계시의존신학은 성경중심적 신학을 뜻하게 됩니다. 합동신학교의 이승구 박사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전통이나 역사를 신학의 궁극적 원천으로 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폭 넓게 참조하되 모든 논의의 최종적인 결론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내린다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AD 354-430)은 예수님을 믿음과 성경을 믿는 것을 이해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credo ut intelligam)이라 해서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간결한 모토는 정통 기독교의 인식론 세계에서 명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25-27절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전연 하나님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성경말씀)을 받아야만 안다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꿈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예멘의 소코트란(Socotran)

60,900명의 소코트란족은 소코트라섬에 거주하는데, 이 소코트라섬은 아프리카 호른(Horn)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상어 출몰지에 위치한다. 소코트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고대 인디어)에서 나온 말로 "행복이 사는 섬"이라는 뜻을 지닌다. 소코트라는 다양한 전설에 나왔던 단어다.

소코트라섬의 거주민들은 본토 아랍인들과 다르며 그리스, 포르투칼, 아프리카, 아랍의 혼혈이라고 여겨진다. 그들의 언어는 고대 힘야리트(Himyarite)어의 한 변형이며, 힘야리트어는 이슬람 세계가 되기 전 몇 세기 동안 아라비아에서 사용됐던 언어다.

소코트라섬은 남동부 예멘의 마라(Mahra) 술탄의 오랜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통치는 1507-1511년 포르투칼 점령에 의해 중단됐다. 1834년 영국이 이 섬을 구입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1880년대 술탄이 술탄의 영지에 대한 영국의 보호를 받아들였다. 1967년 술탄의 영지는 마침내 끝나고 소코트라섬은 예맨의 일부가 됐다.

삶의 모습

소코트란족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거의 없다. 소코트라섬 방문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코트라섬은 오랫동안 "지구의 끝"으로 여겨졌다. 소코트라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소코트라는 온화한 기후에 바람이 많은 섬이다. 하지히르(Hajhir)산이 섬의 내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이 좁은 연안평야는 북쪽에, 좀 더 넓은 평야는 남쪽에 있다. 소코트라섬에는 하나의 작은 공항만 있으며, 정기운항 비행기는 없다. 우기 동안에는 배로 섬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소코트란족은 어업, 진주 따는 잠수, 작은 규모의 농업에 종사한다. 내륙에서 유목민들이 소와 다른 동물들을 사육하고 약간의 농작물 재배를 시도한다. 섬의 주요 수출품은 "기(ghee, 버터의 종류)", 물고리, 유향이다. 가장 큰 마을인 수도는 하디보(Hadiboh)이며, 섬의 북부연안에 위치한다.

섬에는 수많은 희귀한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매혹적인 장소였다. 이 지역의 식물들은 북동부 아프리카 고지와 소말리아 평야지역의 식물들과 관계가 있다. 대략 소코트라에 있는 특이 식물들이 216종에 이르며, 그 중에 85종은 멸종위기에 있는 것들이다. 많은 식물들이 경제적 혹은 약용으로 가치가 있지만 이것들을 활용할 기회는 거의 없다.

기독교가 매우 일찍 주후 535년에 소코트라섬 사람들에게 소개됐다는 증거가 있다. 이 때 네스토리우스 교파 주교 한 분이 이 소코트라섬에 거주했다. 사도 도마의 사역결과로 그곳에 기독교 교회가 있다고 믿어진다.

소코트란족은 1542년 성 프랜시스가 인도로 가는 도중 그들을 방문했을 때까지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 슬프게도 1680년까지 기독교는 사실상 끊어지게 됐다. 이는 아랍인들의 탄압과 섬의 선교지원에 대한 네스토리우스 장로들의 간과로 인한 것이었다.

신앙

오늘날 소코트란족은 거의 100% 무슬림이다. 어림잡아 50%가 시아파 제이티스(Shi'ite Zaydis) 분파에 속하는데, 이 분파는 그 형식에 있어 매우 광적이고 엄격하다. 제이디스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들이고 모든 전쟁을 "지하드(무슬림의 "성전" 또는 이교도에 대항하는 성전)"의 현시라고 인식한다. 그들은 제이드(Zayd)의 이름을 따르는데 제이드는 카스피해 남쪽에 처음 나라를 세우고 864년에 죽었다. 제이디스들은 "수피즘(Sufism, 이슬람의 신비주의적 계파)"의 모든 형태를 거부한다. 소코트란족의 나머지 사람들은 수니파 무슬림(40%)이거나, 이스마엘파 무슬림(9.7%)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세계 다른 지역들과 차단돼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된다. 섬을 방문하기 위한 허가는 예멘 군대로부터 얻어야 하고, 섬에 있는 하나뿐인 호텔은 군사적 이용을 위해 활용된다.

성경의 일부가 소코트란족 토착어로 있기는 하나 어떤 형태로든 영적 돌파구가 없이는 그 쪽복음들이 분배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도는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데 중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멘' 대신 '아멘, 그리고 여성'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기도에서 '아멘' 대신 '아멘, 그리고 여성(Amen, and A woman)'이라는 말로 마치면서 SNS를 중심으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기도 내용 중엔 기독교의 하나님뿐 아니라 인도 최고신 브라만과 다른 신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어 교계의 비판도 나온다.

미주리주 민주당 하원 이매뉴얼 클레버 의원은 지난 3일 제117회 하원의원 회의 오프닝 기도에서 '아멘' 대신 '아멘, 그리고 여성'으로 마쳤다. 클레버 의원은 미국 연합감리교 소속 목회자로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성야곱연합감리교회 목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I pray in Jesus name, Amen)으로 끝난다.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그렇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는 뜻을 나타낸다. 기도와 찬송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클레버 의원의 기도 내용 중엔 전통적인 기독교 기도에서는 벗어난 타종교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소서.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나라의 빛을 높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가정의 평화와 이 나라의 평화, 그리고 하원을 향한 평화를 내려주소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브라만 그리고 수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성."

클레버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 날인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 오프닝 기도를 하게 되어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하원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네시주 공화당 팀 버체트 의원은 "기도가 '아멘 그리고 여성'으로 끝났다. 아멘은 성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다. 아멘은 라틴어에서 '그렇게 된다'는 뜻을 가진다. 이는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켄터키주 루이빌의 보이스칼리지 복음과문화센터 데니 버크 대표도 "아멘은 '그것은 맞다'는 뜻이지 성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 기독교 방송인 CBN 뉴스 진행자인 데이비드 브로디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멘 그리고 여성?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쳐간다. 이것은 젠더 이슈가 아니다. 말도 안 된다"고 썼다.

영국 Z세대, 코로나 고난에 신앙 깊어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동안 영국의 Z세대(16-24세) 중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밀레니얼세대(25-39세)보다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영국인 2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나님 혹은 영적 존재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Z세대의 23%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밀레니얼세대는 19%에 그쳤다. '영적 존재의 힘을 믿는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Z세대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36%)은 하나님 혹은 영적 존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믿지 않는다'는 4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유고브 측은 "지난해 1월 조사 당시 Z세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응답이 21%를 나타냈던 것에서 2% 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하나님을 포함해 영적 존재를 믿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젊은 세대의 신앙심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코넬대 랜든 슈나벨 교수는 런던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 특히 Z세대의 신앙심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려왔기에 이번 조사가 눈에 띄는 결과였다"며 "느슨해져 있던 가정 내 기독교 정서가 코로나19로 인해 팽팽해지고 가족과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Z세대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이런 현상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턴일리노이대 라이언 버지 교수는 "미국인들은 통계적으로 영국인보다 더 높은 종교성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경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2018년 진행된 미국 내 '일반사회 조사'에선 Z세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응답이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유고브 조사에서는 영국인들의 약해진 기독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응답도 눈에 띄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1%)이 '하나님이나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성탄절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영국인 대부분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었지만, 응답자 82.5%는 성탄절을 '세속적 행사'로 보고 있었다. '종교적 행사'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8.5%에 불과했다. '영국인들이 인식하는 성탄절의 종교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서도 80.8%가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늘어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새해 묵상… '다섯 단어' 꼭 기억하자

미국 목회상담가 폴 트립 목사가 새해를 맞아 더 깊은 묵상을 위해 기억해야 할 5가지 단어를 제시했다.

트립 목사는 지난 1일 미국 복음연합(TGC) 홈페이지에 '새해 묵상을 위한 5단어'란 글을 기고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란 막연히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등 풍성한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뜻한다"며 "묵상은 영성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습관이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현대인에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급적 시간을 내 조용한 곳에서 성경 말씀을 길잡이 삼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묵상에 임해보라"고 권했다.

트립 목사가 바람직한 묵상을 위해 제안한 5가지 단어는 '생각하기 고백하기 숙고하기 축하하기 약속하기'다. 생각하기는 일상에서 발견한 축복을 헤아려보는 것을 말한다. 트립 목사는 "불평 거리를 세는 대신, 그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이를 일기장에 적어보라. 그간 눈에 띄지 않았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 축복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백하기는 지난 한 해 행한 일 중 회개할 만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항상 고백할 일이 있기 마련"이라며 "새해를 맞아 양심을 깨우는 성령의 사역에 마음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고백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덮어줬음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숙고하기는 자신의 내면과 일상, 일과 대인관계 중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축하하기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엄청난 혜택에 감사하는 것이며, 약속하기는 위의 묵상에서 깨달은 점을 실행하는 것이다. 트립 목사는 "새해만큼 묵상하기에 좋을 때는 없다"며 "올해는 묵상의 풍성한 토양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립 목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폴 트립 미니스트리'와 목회상담센터 대표다. 국내에 소개된 최근작으로는 '폴 트립의 은혜 묵상' '눈보다 더 희게'(생명의말씀사) 등이 있다.

한국계 美하원의원 한복 입고 취임선서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58·한국명 순자·사진) 의원이 한복 차림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연방 하원 취임·개원식에서 붉은색 저고리와 짙은 푸른색 치마 차림으로 맨 앞줄에 자리잡았다. 그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인도에 따라 동료 의원들과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면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공식 취임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복 차림에 대해 "한국계 미국인인 동시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한복을 입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이는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내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주, 국민의 의회가 다양성을 중시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9월 태어났다. 서울 출생으로 한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2010-2018년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을 지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화당 소속 영 김(한국명 김영옥)·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의원도 함께 당선되면서 한국계 여성 3명이 동시에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美의회 난장판 묵묵한 뒷정리,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사건 이후 7일 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묵묵히 뒷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남성은 뉴저지에서 재선을 성공한 '한국계' 주당 하원의원 앤디 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물병, 의류, 트럼프 깃발 심지어 미국 국기까지 의회 내부에 흩어져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시위대 난입으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 회의가 다시 소집되고 난 후 의사당 복도를 걷다가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했다. 그는 마침 의사당 경호 인력 몇 명이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쓰레기봉투를 얻어 청소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 강렬한 애국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정말 가슴이 아팠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랑하는 무언가 망가진 것을 봤을 때 고치고 싶을 것"이라며 "의사당을 사랑하고 이곳에 있어 영광"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이 건물은 특별하고 특히 원형 홀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얼마나 많은 세대가 이곳에서 영감을 얻겠느냐"고 말했다.

그의 모습을 목격한 동료 의원 톰 맬리노스키는 "당시 새벽 1시였는데 누군가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집어 올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바로 앤디 김이었다"며 "조용히 잔해를 봉투에 넣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청중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었다"며 "이날 가장 가슴이 저미는 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이날 쓰레기를 치우는 김 의원의 모습은 각종 SNS와 AP통신 취재진을 통해 널리 퍼지며 감동을 주고 있다. 앤디 김은 한국계 이민 2세로 뉴저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시카고대를 졸업했다. 이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첫발을 내디딘 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감독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 인기 '팔러'도 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 우파 소셜미디어서비스(SNS)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마켓에서 해당 SNS 제공을 중단시켰다.

폭스뉴스는 9일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뒤 보수 강경파 활동가들과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파 SNS '팔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팔러는 '큐어넌(QAnon)'과 '프라우드 보이스' 등 극우단체 회원과 백인우월주의자 등이 애용하고 있는 SNS다. 공화당의 토머스 메시 하원의원(켄터키), 매디슨 코손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 등을 비롯해 보수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마크 레빈 등이 팔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브래드 파스칼은 "팔러 서버가 트위터를 떠난 사람들로 압도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다.

팔러 인기는 수치로 증명된다. 앱피겨스(App Figures)는 이날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팔러 다운로드 수가 15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의 무료 앱 가운데 1위다.

앱피겨스는 "팔러의 다운로드 횟수가 지난주(1만2000건)와 비교해 34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팔러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만 45만건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밝혔다.

팔러가 인기를 끌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3. 우흥태(1878-?)

우흥태(禹興太)는 1878년 2월 26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연희전문학교 동지회 흥업구락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것 같다. 그는 서울 YMCA에서 활동하면서 이승만과 교제했다.

우흥태(Wooh, H.T)는 1914년에 45세의 나이로 도미했다. 신한민보는 '우씨 상륙'이라는 제하에서 "코레아 선편에 입항한 우흥태 씨는 이민국 검사를 받은 결과로 엔즐아일랜드 병원에 들어가 수일 동안 구충병을 치료하고 본월(6월) 22일에 의사의 허가를 얻어 무사히 상륙하였다더라"고 보도했다. 흥사단 단우 1호인 하상옥이 1914년에 우숙자와 결혼하였는데 우숙자가 우흥태의 딸이었으므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흥태가 딸 우숙자와 함께 도미했는지는 더 조사할 사항이다. 상항에 상륙한 그는 이듬해인 1915년 11월에 대한인 국민회 북미총회 상항 지방회에 입회했다.

그 후 우흥태는 콜로라도주 피아블로로 이동했다. 도미 3년 후인 1917년에 13세의 딸 조앤과 10세의 톰이 한국에서 피아블로로 이주했다.

피아블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17년의 9월 10일에 미국 콜로라도주 피아블로 지방에 거류하던 한인들이 피아블로한인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본 교회 예배장소가 기숙사 안에 있었다는데 무슨 기숙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918년 4월 14일에 대한인 국민회 북미지방 피아블로 지방회가 조직되면서 이스트 애브리엔도 애비뉴 1319번지에 회관을 설치했는데 이 회관을 빌려 예배처소로 이전했을 수도 있다. 이 회관은 1902년에 건축한 건물로 5유닛인데 이 중 한 유닛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 건물은 오늘날에도 잘 보존되어 있다.

김원용이 쓴 '재미한인50년사'에 따르면 우흥태는 피아블로한인감리교회 전도사였다. 교회가 개척한 1년 후인 1918년 4월에 그의 사위 하상옥

1918년의 피아블로한인감리교회

가정이 사업을 위하여 상항에서 피아불로로 이주하였으니 교인 한 가정이 늘었다.

사위 가족이 이주하던 1918년의 9월 12일에 40세의 우흥태(H.T. Woo)는 세계 제1차 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본 서류에서 따르면 그는 콜로라도 철강회사에서 노동자로 취직했다. 1920년 인구조사에는 그의 직업이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우흥태(Wooh, H.J.)가 철강 공장에서 철강오프너(Wire Opener)로 노동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날의 평신도 자비량 전도사였다.

위의 세계 제1차 대전 징집서류에서 우흥태의 인상착의를 엿볼 수 있다. 그의 키는 '크다,' '중간이다' 그리고 '작다'의 삼다 선지에서 '작다'라고 했고, 체구가 '가늘다,' '중간이다' 그리고 '퉁퉁하다'의 삼다 선지에서 '가늘다'라고 했으며, 갈색 눈에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것으로 적혀 있다.

우흥태의 주택

우흥태의 1918년도 거주지는 위의 세계 제1차 대전 징집서류에는 '아브리엔도(Abriendo) 1133번지'였다. 이듬해 피아블로 전화번호부에는 '이스트 아브리엔도 애비뉴(East Abriendo Ave) 1133번지'라고 적혀 있어, 이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보인다. 이 주소의 주택은 1900년에 건축하였고 654 스퀘어 피트(18.4평)에 방이 둘 있었고 거실이 있는 집이었다. 게재한 사진은 2020년의 주택이다.

1917년 9월 20일 자의 신한민보는 "피아블로 동포가 수십 인에 지나지 못하는 터인데 종교상 신앙심이 건전하여 노동 생활이 공총한 가운데 한 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열어 영의 자애를 느끼고" 있음을 보도했다. 이어서 대한인 국민회 북미총회 가옥 은행채 보상에 72달러 기부, 국치기념에 동맹저금을 실행, 하란사 씨의 발기한 서울 정동감리교회 오르간 연조에 40달러 기부, 학생 원창의 씨의 치료비 15달러 기부와 이후 병원비 후원 약속 등 그해 있었던 좋은 사역을 나열하였는데 이들도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실행했을 것으로 본다.

1917년 8월 30일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한인감리교회가 설립되기 1달 전인 1917년 8월 21일에 한인학생 원창의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 사립병원에 입원했고, 1918년 1월 17일 자의 신한민보에서 위에서 언급한 병원에 입원한 한인유학생 원창희가 정신병으로 작년 8월 22일에 입원하였는데 매일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곳 동포들이 고학생을 위하여 심히 걱정하면서 3차에 걸쳐 후원비를 모금했으므로 우흥태 전도사의 기도와 심방이 잦았을 것이다.

3차에 걸쳐 병원비를 후원한 피아블로 후원자는 박춘근, 이기욱, 도익모, 박인선, 이춘식, 홍승억, 김원용, 강화서, 허도선, 이원식, 임학윤, 우일, 신문채, 박상섭, 허도선, 조원두, 유덕형, 윤승렬, 장한조, 이근수, 양국환, 최영기, 박귀호, 전진택, 김정진과 우흥태였다. 이들 대부분이 교회에 참석했을 것이다. 총 156달러를 후원했고, 우흥태는 두 번에 걸쳐 40달러를 후원했다.

1919년 6월에 우흥태가 북미총회 한인교회 공의회에 4달러를 헌금하였다. 그 외에도 푸에블로에서 헌금한 사람은 이기욱, 정봉흥, 고목윤, 신기선, 윤승렬, 강화서, 홍희주, 우영빈, 하상옥, 윤영택 그리고 이육봉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교인인 것으로 보인다.

피아블로에 거주했었던 김원용의 재미한인50년사는 본 한인감리교회가 1919년까지 2년 동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흥태의 사역기간은 2년이 된다.

동포사랑과 애국운동

1917년 12월에 보도된 1918년 북미총회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 피아블로는 4표이므로 피아블로에 거주하는 북미총회 회원이 4명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 피아블로 지방회 설립에 우흥태가 주도했다. 피아블로 지방회 청원서에 따르면 청원 모임의 회장에 우흥태였고, 서기에 이의춘이었으며, 청원자는 김정진, 이춘식, 박인선, 정흥봉, 신기선, 이원식, 양국환, 김원용, 안천주, 박희영, 임학윤, 이영기, 이기욱, 조의환, 서승규, 황동성, 허도선, 남승회, 이상규, 최영기, 윤승열, 홍희주, 박춘근, 조 극이었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장 이대위의 허락으로 그달 14일에 지방회를 조직했고, 우흥태는 대의원에 선정됐고, 이스트 애브리엔도 애비뉴 1319번지에 회관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 주소의 다른 유닛에서 양국환이 1년 전에 식당을 하였다.

1919년에는 우흥태가 대한인국민회 북미 지방 피아블로 지방회의 학무원으로 선임되었고, 그의 사위 하상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해 2월 1일에 대한인국민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우흥태는 축사 순서를 맡았다. 이날 국민회가를 부른 우영빈 여사와 우영택이 우흥태의 부인과 아들이 아닌가 싶다.

그해 3월 세계 제1차 대전 전시 미주한인의 금력 찬조에 우흥태는 자유공채로 100달러, 전시 저축표로 30달러 그리고 적십자회와 기타 전쟁보조금 11달러를 사용했다. 그해 4월에는 그가 피에블로 지방 독립 의연 수전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달 15일 오후 7시에 푸에불로 지방회 회관에서 회원 일동이 만강 열정과 무량 환희를 가지고 대한 공화국 건설과 신정부 조직을 축하하였는데 하상옥 회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한 직후 우흥태가 기도했다. 그해 5월에 우흥태는 정홍봉과 홍희류와 함께 피아블로 지방회 파출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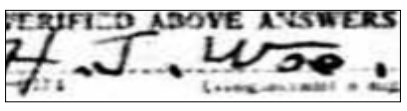
정한경이 1919년 8월 5일에 미국인 중앙기독교회 예배당에서 한국의 현상과 한인 친교회를 소개하였을 때 한인 친교회에 가입한 백인이 15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흥태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그해 9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 한인동포 전체가 애국심과 적개심으로써 정중하게 국치기념식을 거행했을 때 그가 기도순서를 맡았다. 국치기념식을 마친 후 만당의 비량함이 극도에 달하여 사람마다 거의 눈물을 뿌리게 되었다. 한 동포가 오늘 하루에 번 돈을 모아서 장래 국가사업에 보태어 쓰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날 번 돈을 쏟아 놓으니 총 64달러였다. 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이 운동을 계속하기로 가결하였고 장래 애국 저금회가 조직될 조짐이 있었다. 그해 9월 우흥태는 적십자회 지부에 5달러를 기부했고, 그의 딸 조앤은 2달러를 기부했다.

귀국

1918년에 제출한 우흥태의 세계 제1차 대전 징집서류에는 부인이 한국에 있다고 적혀 있고, 1919년 피아블로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우흥태의 부인인 새라(Sara)가 피아블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20년 연방정부 인구조사에 없었으므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싶다. 그해 1920년 7월에 딸 우명원과 사위 하상옥이 상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우흥태는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흥태는 씩씩했다. 그는 신기선과 함께 구미위원부 피아불로 지방위원, 도익모와 이기욱과 함께 광복사업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한 피아불로 애국 적금위원,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피아블로지역 성탄의연 수합위원으로 활동했다. 우흥태의 딸 조앤(복자)이 조지워싱턴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24년 8월 20일 뉴욕에서 남궁억의 외아들이자 구미위원부의 남궁염과 결혼식이 있었으나 우흥태가 참가하지 못해 중매쟁이 이승만이 신부를 데리고 입장했다. 아마 한국가는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이듬해 5월에 일본 외무성이 우흥태를 불량조선인으로 기록하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흥태는 가주 리들리에서 지내다가 상항의 딸집에서 묵은 후 천요 마루 편으로 그해 1925년 11월 24일에 혼자 귀국했다. 귀국한 우흥태는 서울 정동교회와 중앙교회



우흥태의 날인(1918년)

와 상동교회에서 일요강화의 강사로 활동했다. 1934년 8월 12일부터 1937년 8월 8일까지 그가 강연한 제목은 '고해를 어찌 건널까' '유혹시대' '해방은 찢어진 휘장' '암흑에서 출하여' '산소망' '각성' '십자가는 권능' '유수 불식 기갈이라' 그리고 '탐욕은 허사' 등이었다.

1938년 8월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연희전문학교 동지회 흥업구락부 관계보고서는 민족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동지회 사건 검거와 관련하여 우흥태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 달인 1945년 9월에 작성된 '임정 외에 정권 참칭하는 단체 및 행동 배격 결의 성명서'에 우흥태의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이후 우흥태의 이름을 찾기란 어렵다.

damien.sohn@gmail.com

1914년 딸 결혼식 참석차 도미, 피아블로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자비량 사역
광복위해 국민회 활동, 1925년 귀국 서울 정동교회 등서 일요강화 강사 활동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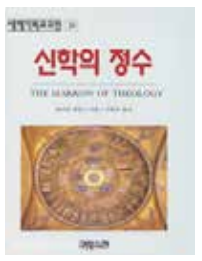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

(4)신앙의 대상과 내용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 아니라 매개적 대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고후3:4, 벧전1:21). 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이다(고전2:2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구원에 주목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한다(고전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믿어야 할 모든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유한 근거이다. 신앙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신적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벧후1;20-21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또 신앙이 신앙하는 행위를 지시할 때 신앙의 최종적인 근거는 성령의 작용과 내적인 감화에 두어져야 한다(고전12: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는 이러한 신앙은 진정한 마음의 본래적인 신뢰이다. 이런 신뢰는 확신과 기대를 위한 선하고 충분한 수단을 택하고 얻어야 할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제시되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의뢰하다' '의지하다' '신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충족한 삶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신30:2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최초의 행위이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는 구원의 수단이 전적으로 결핍되어있다는 인식과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반드시 추종하고 신실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지성적인 인정을 통해서는 이렇게 복종할 수 없으며, 이는 오직 의지의 동의로서만 가능하다. 신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고한 소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점에서 신앙 자체이다. 어떤 자들은 신앙을 부분적으로는 지성 안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의지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일한 덕목이요 항상 단일한 성질로 구성된 행위들을 낳기 때문이다.

지성 계발은 의지 부패 극복이 먼저...회심 가져오기 불충분
신앙 정의와 회심 가르침에 감정과 의지적 차원 동등히 강조

4)퍼킨스와 차이점

이런 점에 있어서 그는 그의 멘토인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를 통해서는 방향을 정립하고, "신학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리다"라고 말한 페트루스 라무스(Petrus Ramus 1515-1572)의 영향을 받았다. 퍼킨스는 신학을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퍼킨스에 따르면, 이 복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얻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 퍼킨스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과 라무스의 방법론을 조합시킨 것이다. 그러나 에임스는 퍼킨스가 말하는 복된 삶이 방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퍼킨스의 견해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복된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에임스에게 있어 신학의 목적은 결코 복을 창출하는데 있지 않았다. 그는 신학의 목적이 인간의 궁극적인 열망과 욕구에 주로 관련되어있다고 느꼈다. 인간이 자신의 복만을 추구할 때, 인간은 삶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 그에게 있어 신학은 기독교적인 삶을 위한 학문이었다. 신학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학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욕구를 통해 주어지고 성립된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신학이 기독교 실천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5)신앙에 있어 의지의 우선성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와 프라네커 대학(Franeker University)의 동료교수인 마코비우스(Johannes Maccovius, 1588-1644)와의 논쟁의 핵심 논점 가운데 하나였다. 마코비우스는 에임스와 비슷한 입장을 가졌지만,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있는 지성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곧 의지는 지성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것이다. 지성은 과정의 출발점(terminus a quo)이고, 의지는 과정의 도달점(terminus ad quem)이다. 그러나 에임스는 의지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지성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믿을 때에 의지의 행위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식을 구원하는 지식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구원하는 지식은 의지의 전적인 의뢰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에임스는 "신앙은 항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지의 행위를 따르고 그 행위에 의존하는 지식이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하는 지식은 없다"라고 설명한다(1권 3.3-4 참고 2권 5.11-16).

그의 이런 입장은 신앙은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17세기 초반에 수립된 정통주의와는 크게 달랐다. 결과적으로 에임스의 신앙과 의지에 대한 입장은 정통 개혁파의 의심을 받았다. 에임스의 계승자로서 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과 경건 체계를 발전시킨 지도자인 기스베르투스 뵈티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는 "구원을 의지에 귀속시키는 사상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유일한 신학자는 에임스 제외하고, 개혁파 신학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의 범주 안에서 에임스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활력적이고, 진심 어린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갖게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 부르실 때 사람은 수동적이지만 영적 은혜의 원리가 사람의 의지 속에 심겨진다고 한다(엡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회심의 문제에 대해, 에임스는 지성의 계발이란 먼저 그 의지의 부패가 극복되어야하므로 회심을 가져오기 불충분하다고 강조한다.

6)신앙에 있어 칼빈과의 연속성

에임스는 신앙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칼빈과는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었지만 칼빈의 신학적 관점과 명백히 연속성 위에 있다. 칼빈은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기반을 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정의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감정의 역할을 기술하면서, 칼빈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전히 뜨거운 열심히 없다면, 지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칼빈은 "일단 어떤 사람이 감정의 자극을 받으면, 감정은 철저히 그를 사로잡아 그를 감정으로 이끈다."라고 말한다. 칼빈과 똑같이 에임스도 신앙을 정의하고 회심을 가르칠 때 감정적 차원과 의지적 차원을 동등하게 강조했다.

의지를 신앙의 중심 항목으로 간주함으로서, 에임스는 참된 경건은 죄인인 피조물과 구속하시는 창조주 사이의 언약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의지의 행위로서 신앙은 언약에 대한 순종의 참된 표지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제공된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약신학은 에임스의 신학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hyojungyoo2@yahoo.com

성 품 칼 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순종, 더 안전한 지대를 향하여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 필립이라는 소년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필립을 부르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립! 지금부터 아빠의 말을 잘 들어라! 아빠가 시키는 대로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라!"

필립은 아빠의 갑작스런 지시에 어리둥절했지만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필립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립! 아빠 쪽으로 빨리 기어오너라. 최대한 속력을 내서 말이야."

필립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손과 발을 최대한으로 움직여 아버지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르자 아버지는 또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필립. 이제 일어서서 빨리 뛰어오너라!" 필립은 아버지의 말에 "네!"하고 큰소리로 대답하며 아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필립과 만난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필립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필립, 뒤를 돌아 나무를 한 번 보거라." 필립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 나무를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필립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기대고 있던 나무 위에 큰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립은 너무나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아버지 또한 놀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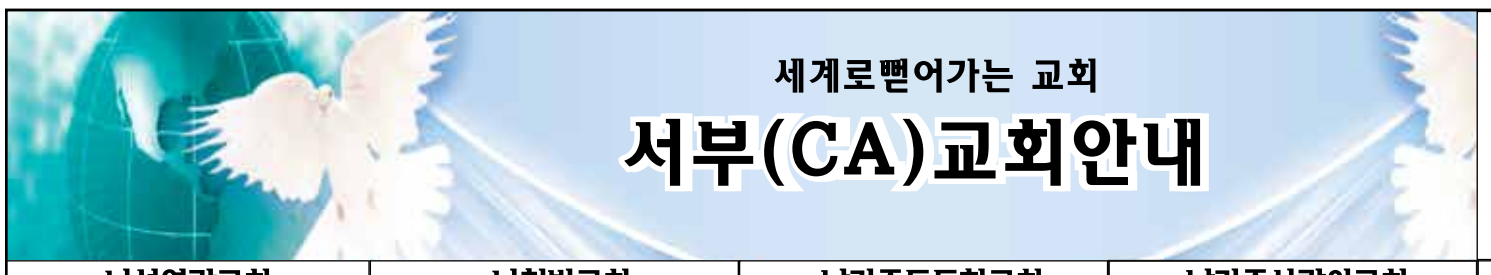
"필립, 네가 아버지의 지시에 잘 따랐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단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줘서 고맙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더 안전한 지대를 향한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지대(safe zone)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10시-오후4시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핌(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ulul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빼앗긴 들에도 새해는 오는가?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이 코비드로 인하여 빼앗긴 시간에도 새해는 왔다. 우리의 삶에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생명은 짧아지고 주름은 늘어나는데, 그래도 새해가 오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궤적 속에 둥근 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육십이라는 숫자를 한 바퀴 돌면 초와 분과 시라는 시간 단위가 생긴다. 달력에는 칠일을 단위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고, 삼십 일 단위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열두 달을 단위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이와 같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원과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운 주간이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저질렀던 실수와 부족한 면들을 새 시간과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의욕과 희망이 생긴다.

누가복음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눅13:8,9)라며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다. 시간 속에 원의 개념이 있기에 새해에 새 각오로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또 다시 허락된다. 그리고 그 원의 개념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에 자연만물은 생명의 잉태와 추수와 죽음을 반복함으로서 온 세상에 생기와 환희를 불어넣어준다.

시간에는 원의 개념뿐만 아니라 또한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의 개념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 자신의 시간을 시작하고 그 시간의 끝에 죽음으로서 그의 시간은 끝난다. 인류의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하였고, 인류의 역사는 종말과 함께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은 직선적인 개념으로서의 시간을 많이 말해준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와 함께 시간은 시작하였고,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다고 말해준다(벧전4:7).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시간(선 시간, before time)이 없었을까? 종말 후에는 더 이상 시간(후 시간, after time)의 흐름이 없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보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했고(창1:2), 세계 종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다(마25:46, 히9:27). 거기에는 윤회와 같은 원의 개념은 없다. 직선의 개념으로서의 시간은 상당히 무정하고 냉철하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원의 개념으로서의 시간에는 기대가 있다. 새로운 기회가 또 다시 주어진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크로노스란 단어가 있다. 이 말은 연대기적이며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하루의 해가 뜨고 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고 죽어간다. 크로노스적인 의미에 있어서 시간은 노쇠함과 소멸, 그리고 시간의 변화만 표시할 뿐이다.

시간의 의미하는 헬라어로 또한 카이로스란 단어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곧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란 뜻을 나타낸다. 크로노스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일반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새로운 시간들,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며 사는 시간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 등 의 미있는 시간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021년이라는 새해, 이 해는 202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기 원했던 그 시간이다. 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하였던가, 코비드와 처절하게 싸웠던 그 많은 생명들, 코비드에 희생된 그 안타까운 생명들, 그들은 얼마나 살아남기를 염원했고, 한번 밟아보기 원했던 그 새해인가?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행운아들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다시 주어진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가치와 부합할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고 변화된 삶, 열매 풍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우리에게 크로노스적으로 주어진 이 새해를 카이로스적인 새해로 마무리하기를 염원해본다.

dik0184yahoo.com

포스터

"새 영, 새 시대, 새 비전"

UMC한교총 64교회 연합특새 온(오프)라인으로

연합감리교회(UMC) 한인교회들 중 보수그룹인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새 영, 새 시대, 새 비전" 주제로 미주내 22개주 64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새벽예배-모.이.새"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5시30분부터 진행된 새벽기도회는 4일 이성현 목사(샌디에고KUMC), 5일 김광태 목사(시카고제일KUMC), 6일 이진희 목사(텍사스웨이코KUMC), 7일 이기성 목사(뉴저지베다니교회), 8일 김세환 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9일 토요일에는 참가교회 담임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다.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는 "2021년 연합감리교회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해오다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단분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전역에 흩어진 한인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이 시대 한인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나라 백성다운 신앙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 김일영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위축되고, 우울감과 영적 상실감에 빠져있었다. 이번 특별새벽집회를 통해 미 전역에 흩어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한 말씀으로 하나되어 함께 기도하면서, 새 영, 새 비전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갈 영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특별새벽연합성회 후 1월 중순부터 14명의 강사진을 초청해 "뉴노멀시대의 청지기"라는 주제로 신년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또한 사순절 기간인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40일 특별새벽 연합집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 총신대신대원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회장 변창국 목사, 수석부회장 정광희 목사

미동부 총신대신대원 정기총회 화상으로 열려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 정기총회가 팬데믹으로 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화상으로 열렸다.

예배 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원개선이 있었다.

△회장 변창국 목사(뉴욕해뜨지교회, 81회) △수석부회장 정광희 목사(뉴저지영광장로교회, 82회) △부회장 이규섭 목사(제자삼는교회, 79회), 장의한 목사(뉴햄프셔장로교회, 79회) △총무 이윤석 목사(부르클린제일교회, 80회)와 △서기 김홍선 목사(새은혜교회)는 유임됐다.

회장 변창국 목사는 "코비드 사태로 사회가 많이 어려워졌다. 우리 이민자들도 코비드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었다. 교회도 활동들이 많이 줄었다. 이럴 때가 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신동문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각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주어질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취임 의지를 밝혔다.

1부 예배는 정광희 목사(부회장, 82회) 인도로 기도 이규섭 목사(부회장, 79회), 성경봉독 김홍선 목사(서기, 89회), 설교 변창국 목사(81회 수석부회장), 광고 이윤석 목사(총무, 80회), 축도 구자범 목사(회장, 80회) 순서로 진행됐다.

변창국 목사는 "사는 방법"(살전3:7-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욱 큰 고통과 환난을 겪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살겠다(Now We Really Love)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도전하며 "그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도 괴롭히는 환경이 전혀 비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전하고 "힘든 시기에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평신도훈련-뉴노말 시대의 청지기

KUMC, 20개 주 57교회 온라인/오프라인 함께

미주 전역 4만 한인연합감리교인들을 대표하는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는 2021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뉴노말 시대의 청지기" 신년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한다.

20개주 57한인연합감리교회가 참여하는 이번 청지기 세미나 주제는 "2021 비전, 예배, 기도, 섬김, 증인, 헌신, 선교, 교제"이며, 개체교회 담임목회자가 2021 사역 비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류재덕 목사(밸링연합감리교회),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윤국진 목사(미네소타복음연합감리교회), 김태준 목사(시카고살렘교회), 한의준 목사(하와이그리스도교회), 신병옥 목사(로스펠리즈한인연합감리교회), 정성호 목사(와싱톤제일연합감리교회),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 이종범 목사(뉴욕만백성교회), 김응용 목사(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봉 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 김정호 목사(뉴욕후러싱제일교회), 신경림 목사(웨슬리신대원 부총장), 장학범 목사(그레이스벧엘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세미나 강사로 섬긴다.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KUMC)는 "코비드 사태로 고립되고,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뉴노말 시대에 걸맞는 영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훈련받고, 이 시대에 교회와 평신도 리더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도전받고, 응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신년청지기 세미나의 의미를 밝혔다.

한교총은 지난 주간 '새 영, 새 시대, 새 비전'을 주제로 신년특별새벽 연합성회를 가졌고,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기간 동안 40일 특별새벽 연합집회 '솟아오르라'를 준비하고 있다.

한교총 사역, 행사에 대한 문의는 총무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856-424-9686, 이메일: ikim89@hotmail.com)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교총〉

자마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들

다음세대 리더십은 40대 4명 팀사역

JAMA 강순영 대표직 은퇴 차기 리더십 계승

김춘근 교수와 함께 1993년 11월에 JAMA 운동을 시작해 총무, 부대표직을 거쳐 지난 7년간 제2대 대표를 맡아 섬겨왔던 강순영 목사가 71세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말을 기해 대표직을 은퇴했다.

지난 2020년 10월 24일 JAMA Global 이사회에서는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를 크게 인정해 제2대 원로대표(2nd President Emeritus)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동시에 Korean-American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전국적인 중보기도운동을 계속해서 리더로 섬기는 일과 2020년에 시작한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청교도 신앙 회복 부흥운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기로 했다.

JAMA 설립자이자 JAMA Global Campus 이사회 회장인 김춘근 교수는 "전국 도시별, 지역별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총 동원하여 오너십을 갖고 서로 협력하며 우리가 먼저 제2 청교도의 사명을 계승하고,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한 미국이 잃어버린 청교도 신앙회복 부흥운동을 미 전국에 산불같이 대대적으로 일으키자는 사명을 목사님께 맡겼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되면 전국을 순회하실 강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 2020년 계획이 팬데믹 때문에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400주년 기념 미 청교도 신앙 부흥집회가 지난 11월에 1주간 새벽과 저녁마다 12명의 기도리더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미 시작돼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강순영 목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김춘근 교수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에 힘입어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JAMA가 많이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JAMA 모든 사역(기도, 각성, 회개, 부흥운동, New Awakening Conferences, GLDI, CP-R, Leadership Training 등)과 Lindale Kingdom College,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D&E Academy(Prep School 고등학교), 세계선교, Silver Town 주택개발, 농업 등 하나님의 총체적인 킹덤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동부텍사스 린데일에 소재한 가든 벨리에 JAMA 글로벌 캠퍼스를 허락하셨다. 이 총체적인 JGC 킹덤 커뮤니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도전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 앞으로 리더는 한 사람이 아닌 팀으로 구성하되 40대 청장년 영어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인격을 갖춘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을 선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4명의 40대 리더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했다"고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소개했다.

△Cathy Rabb: JAMA에서 20년 이상 스텝으로 총무, 부대표를 거쳐 현재 JAMA 수석 부대표로 섬기고 있다.

△Christopher Lucey: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 아주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전체 운영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현재 JAMA Global 이사회 수석고문이자 JAMA 글로벌 캠퍼스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로 섬기고 있다.

△Elijah Ahn: 볼티모어 새소망교회 부목사 겸 청년담당목사. 현재 JAMA글로벌 이사로 앞으로 영어권 젊은이들과 청소년 운동의 중요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Paul Kim: 현재 연방정부 검사로 Cyber Unit과 Market Abuse Unit을 책임지고 있다. 제 2차 자마 전국대회를 위해 영국에서 대학원재학 중 돌아와 준비위원장으로 대회를 섬긴바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뉴저지한인회장 2천불 성금 전달

뉴저지목사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전개하고 있는 "어려운 목회자 돕기"에 뉴저지한인회 손한익 회장이 2천 달러를 쾌척했다.

뉴저지교계와 목회자들의 활동을 적극 돕고 있는 손한익 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 뉴저지목사회가 나서주셔서 감사하다. 뉴저지목사회가 벌이고 있는 '어려운 목회자 돕기' 운동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솔선수범하기로 했다"며 뉴저지목사회장 이의철 목사에게 2천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저지목사회〉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하례식'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47회기가 2021년 신년을 맞아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하례식'을 1월 24일(주일)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개최한다. 코비드로 만찬자리는 없으나 이민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장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의: (718)279-1414

뉴저지교협&목사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저지교협(회장 이정환 목사)과 목사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함께 하는 연합 2021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19일(화) 오후 5 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이정환 목사)은 2021년 신년시무예배 및 하례식을 1월 19일(화) 오후 5시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뉴저지 교협은 500달러 상당의 세정제를 선착순으로 필요한 교회에 제공한다. 신청은 이메일(njkoreanchurches@gmail.com)이나 전화로 하면 되며, 1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세정제를 픽업한다.

▲문의: (201)394-7821 총무 김동권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고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목사고시가 5월 11-12일 동부(퀸즈장로교회), 서부(대흥장로교회)에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 및 총회인준 정규신학교 M.Div 학위 졸업자나 2021년 6월 30일 이전 졸업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사람. 고시과목은 필기고시(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와 제출고시(구약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 면접고시로 나뉜다. 응시서류는 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혹은 학교장 확인서, 신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소속노회장 추천서,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이력서, 명함판 사진 2장이 필요하며 고시료는 100달러.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818)282-0112 kapcpastor@gmail.com

JESUS POWER ACADEMY 오픈

낮은울타리 미주본부(http://www.wooltarius.org, 대표간사 조희창 목사)에서 ZOOM으로 만나는 어린이 세계관 학교 JESUS POWER ACADEMY를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6시(미동부시간) 6주간 진행한다. 대상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60달러. 등록은 링크(https://forms.gle/3W2NesoqRTYPGouW6)를 클릭해서 작성한 후 등록비를 입금하면 완료된다.

▲문의: (646)300-4790

뉴욕가정상담소 무료 영어수업

뉴욕가정상담소가 제공하는 무료 영어수업 직업교육프로그램이 2월부터 5월 중순(총15주)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열린다. 지원 후 배치평가 결과에 따라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뉘며 강사는 영어교육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교사로 취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수업은 일주일에 총 8시간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초급반: 오전 9시30분-11시30분(월, 화, 수, 목) 고급반: 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화, 목)

▲문의: (917)887-9173 김승희 담당자(seunghee.kim@kafsc.org)

뉴욕나눔의집 쉘터 구입 후원 손길 이어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지난연말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자체 쉘터 구입을 밝힌 이후 한인 사회와 교계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연말 나무교회(담임 정주성 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추위에 따뜻하고 안정된 한인노숙인 쉘터구입을 위한 모금후원 500달러를 뉴욕나눔의 집에 전달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24일에는 뉴저지 사랑과진리교회(벤자민 오 목사)가 쉘터 구입을 위한 후원금 2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최 권사가 1만 달러를 쾌척했다.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 믿음과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손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한인 노숙인 쉘터 구입을 위해 한인들이 동참이 이어져 한인들의 손으로 구입될 한인 노숙자 쉘터가 플러싱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뉴저지 교계에 손세정제 대거 배부

뉴저지교협(회장 이정환 목사)과 뉴저지목사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엄청난 양의 손세정제를 기증받고 배부에 나섰다.

이 한국산 세정제 17,280병(20qud X 864박스)은 Intellex Resources Inc. 정재욱 대표(뉴저지 온누리교회집사, 뉴저지새언약교회 출석 이은혜 권사의 사위)가 작년 5월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지만 판매가 용이치 않아 재정적 손실이 크자 친구 Victor Rolando Quinto씨가 전량 구입해 한인교계에 전달한 것.

중간역할을 한 김종국 목사의 제안을 받은 뉴저지교협 회장 이정환 목사와 뉴저지목사회장 이의철 목사는 "Quinto씨와 정재욱 대표, 그리고 김종국 목사에게 감사드린다. 해당 물품을 뉴저지 지역의 한인교회들과 한인 봉사 단체,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공서 등에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물품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대형트럭은 정대기 목사(뉴저지교협이사)가 지원했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뉴욕일원 교계 단체 및 교회 신년감사예배

2021년 뉴욕일원 교계 단체 및 교회들이 신년감사예배를 드리며 힘들었던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이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예배는 코로나 펜데믹 재확산으로 대부분 온라인이나 현장과 온라인을 겸해 진행됐다. 퀸즈장로교회는 1월 1일 신년예배에 이어 2일과 4, 5일 "다시 일어나자"라는 주제로 김성국 담임목사 인도로 새벽특별기도회를 진행했다. 뉴욕센트럴교회는 박종순 목사는 강사로 1월 4일부터 9일까지 "해법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었다.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1월 3일 주일예배에 사무엘상 강해설교를 시작으로 17일까지(월-금) "다윗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새를 이어갔다.

퀸즈장로교회 "더욱 하나님 앞으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월 1일 오전 8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 예배와 성찬을 했으며 11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했다.

김성국 목사는 이날 "더욱, 더욱, 더욱"(벧후1:1-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더욱'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귀한 단어인데 교회에 주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고 "첫째,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의 길을 살 수 있다(2절). 둘째, 믿음이 더욱 많아지면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게 된다(5절). 셋째, 더욱 부르심(사명)과 택하심(구원)의 견고함을 더하라(11절)"고 역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21년 큰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다시 일어나자"라는 주제로 2일과 4, 5일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며 2021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했다.

퀸즈장로교회 신년예배에서 담임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 센트럴교회 신년특새에서 강사 박종순 목사가 동영상으로 설교하고 있다.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신년성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욕센트럴교회 박종순 목사초청 신년특새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해법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었다. 강사는 충신교회 원로 박종순 목사로 6번의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전했다.

김재열 목사는 "강사 박종순 목사님은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존경받는 목사님"이라며 "현재 한국교회지도자센터를 운영하며 교회와 목사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설교 후 열정적으로 기도를 인도했다.

박종순 목사는 "삶의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집회"이라며 6일간 '기도가 해법이다(출17:8-16)', '믿음이 해법이다'(왕하3:13-20), '회개가 해법이다'(사37:1-4, 38:1-6), '말씀이 해법이다', '예수님이 해법이다'. '하나님이 해법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다시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신년성회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강원근 목사)은 1월 4일부터 8일까지 2021 신년 새벽 축복성회를 "다시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성회는 팬데믹으로 각 교회에서 순서를 담당했지만 하나로 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강사는 김진우 목사(멧처치, 메트로폴리탄감리교회), 문정웅 목사(주나목교회), 이요섭 목사(퀸즈중앙감리교회) 등 3인이 2일씩 설교를 담당했다.

또 6일간 대표기도는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 이용연 목사(뉴욕연회 한인코커스 회장), 이용보 목사(뉴욕한인교회),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넥교회), 감남석 목사(뉴드림교회), 정광원 목사(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등이 담당했다.

첫날 집회에서 단장 강원근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양극화 현상은 기독교 교계에도 보여지고 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 더 어렵다"며 "집회 강사 선정시 목회를 충실히 성공적으로 하며 특히 연합집회 강사 경험이 없는 분을 세워 기회를 드리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강원근 목사는 단장 인사를 통해 웨슬리 회심 282주년을 맞아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의 신년집회를 시작하며 "존 웨슬리가 282년전 런던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세례를 체험하고 부흥전도를 이끄는 인물이 된 것처럼 감리교단은 성령체험의 역사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번 집회는 특히 성령충만한 집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집회를 통해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라"고 당부했다.

첫날 김진우 목사는 잠언 4:6을 본문으로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일원 노회들 신년하례예배 온라인 혹은 취소

뉴욕일원의 각 교단 노회들이 신년을 맞으면서 연례적으로 열어본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2021년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일이 속출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교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뉴욕 동노회와 서노회, 남노회는 신년하례를 취소했으며 뉴욕노회와 가든노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이기성 목사) 뉴욕노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KAPC 뉴욕노회

11일 저녁 8시 시작된 1부 예배는 서기 이윤석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성경봉독 정인수 목사, 설교 김성국 목사, 합심기도, 축도 이종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는 "앞서 건너라"(수3: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2020년을 기도로 감사로 교회를 이끈 노회 목사들을 격려하고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2가지는 선택과 앞장 서는 것"이라며 담임목사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에 대해 말했다.

김 목사는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설명한 본문에서 살펴볼 2가지 질문은 첫째, 비전이 큰가, 후회가 큰가? 둘째, 죽고자 하는가, 살고자 하는가?"라며 "이민목회가 어렵지만 뉴욕 땅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므로 지난 것을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로 정복해야 한다. 또 죽음을 각오하고 즉시 순종하며 나간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불을 더 밝히며 성도들을 주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뉴욕노회 목사님들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가도록 △목회자의 사역과 △사모들의 건강 헌신을 위해 또 △한국 교회와 미국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2부 친교는 방정훈 목사 사회로 사모들의 덕담과 간증이 이어졌으며 선물권이 증정됐다.

이날 뉴욕노회는 회계 차상남 장로 등 퀸즈장로교회 교역자들이 각 회원 가정으로 저녁 식사를 배달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기도 했다.

뉴욕노회 봄 정기노회는 3월 16일 열린다.

KAPC 가든노회

12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예배는 노회장 이종식 목사 인도로 기도 조성훈 목사, 성경봉독 박형기 목사, 설교 이종식 목사, 합심기도, 축도 이원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는 "빛의 열매 맺는 노회"(엡5:8,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든노회 노회원들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며 "빛의 자녀는 첫째, 빛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둘째, 주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으라(롬12:2). 셋째,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는다. 싸우고 다투는 것은 마귀의 것"이라고 말하고 "2021년에는 이빛이 노회와 교회와 가정에 비추어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전세계 코로나19 종식과 △총회, 노회, 지교회를 위해 김지희 목사 인도로 마무리했다.

노회원들은 예배를 마치고 영상이나마 얼굴을 마주하고 덕담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테말라 선교지에 있는 임현일 목사도 참석해 노회원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봄 정기노회는 3월 9일 대면으로 뉴욕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KPCA 뉴욕노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노회장 노성보 목사)는 지난 10일 저녁 7시 순서자만 뉴욕한민교회에서 모였으며, 나머지는 줌 화상으로 참석했다.

예배는 부노회장 주영광 목사 인도로 기도 서기 김성은 목사, 성경봉독 김근태 장로, 설교 전 총회장 김종훈 목사, 광고 서기, 축도 전노회장 임선순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 총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는 "왜 의심하였느냐!"(마14:22-3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는 아파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위기는 하나의 시험대다. 시험대의 본질을 붙잡으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더욱더 건강해지는 법이다. 〈16면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된 KAPC 뉴욕노회에서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KAPC 가든노회 에서 이종식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KPCA 뉴욕노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김도현선교사

"회복되어 땅까지 빛을 발하자"

은혜한인교회,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4일부터 9일까지 "회복되어 땅까지 빛을 발하자"는 주제아래 온라인 실시간 새벽부흥회를 진행됐다.

월요일 강사로 한기홍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화요일 최광선 선교사(황금종교회), 수요일 강형민 목사(비쉬켁 선교사), 목요일 김도현 목사(베네수엘라 선교사, 금요일 남병진 목사(인도선교사), 토요일 조경호 목사(센피터스버그 선교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목요일 새벽예배 말씀을 전한 김도현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 먼저 복음이 어찌 시작됐는지 봐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관계하며 살기를 원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에 죄가 충만해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고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는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다. 노아의 식구는 가장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 상황 속에 예배했다면 우리도 예배를 쉬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신약시대를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원치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진짜라면 이 복음 증거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혜한인교회는 이어지는 일천번제 새벽기도회와 함께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를 강사로 신년 축복성회를 21일(목)부터 24일(주일)까지 온라인 실시간으로 개최한다.

〈이성자 기자〉

"말씀 신뢰하며 남 돌아보는 한해 되자"

나성순복음교회, 2021 신년축복 기도원 성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2021 신년축복 기도원성회'가 1월 1일 오전 11시 나성순복음교회 국제금식기도원 야외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려졌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단에 선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본 성회에서 담임 진유철 목사는 "주님께 칭찬과 응답을 받는 믿음"(마8:5-13)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진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해 "올 한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 바란다"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 목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은 예수님이 칭찬하고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도 칭찬받고 응답받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백부장은 첫째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 말씀이 심겨지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다. 백부장에게 하인은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의 필요를 위해 백부장이 희생하니 영광스럽게 됐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들다, 그럼에도 나만 생각하고 좁아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중보하고 선교지를 돌아본다면 백부장처럼 우리도 칭찬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적극적 신뢰와 남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신년 기도원성회를 시작으로 4일부터 9일까지 신년 축복 여리고 특별새벽예배를 드리며 2021년도를 예배로 시작했다.

〈이성자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신년축복기도원성회를 인도하고 있는 진유철 목사.

미주한인의날 기념행사에서 선포문 및 결의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축복을 부르는 일꾼 되라"

CMF 선교원 2021년 신년하례예배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1월 9일 정오, 2021년 신년 하례예배를 드렸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방익수 목사(사랑의 방주교회)의 기도와 오현승 간사(첼로교수) 첼로 특별연주 후 엄영민 목사(전 KAPC총회장)가 "축복을 부르는 일꾼"(창39:2-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을 통해 그가 있는 곳,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셨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문 목사(사랑의빛 선교교회 원로)의 축사 및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 김철민 장로는 "2021 신년하례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한다, 2020년도 표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구체적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섬김의 대상을 구별치 않고 섬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형병 목사(CMF)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CMF사역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후 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CMF사역원은 2021년에도 결혼교실, 아내교실, 사모데이, 사모들의 기도방, 상담과 치유사역, 방송사역, 선교사후원 사역, MK사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CMF선교원에 관한 문의는 (562)483-0191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전진하고 결단하는 시간되길...

미주한인의 날 16주년 및 이민118주년 감사예배

미주한인의 날 16주년 기념행사 및 미주한인 이민 제 118주년 감사예배가 1월 9일 오후 2시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한인재단(회장 이병만)이 주최한 본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감사예배, 3부 감사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샘신 목사(실행 부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기념행사에서 이종용 목사(미주한인의 날 16주년 기념 대회장)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전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이곳에서 빛을 내고 뿌리를 내렸으니 앞으로 열매 맺어 온 세계에 빛과 소금이 되기 바란다"고 개회사를 선언했다.

이어 이병만 회장의 인사말, LA 시의원 John Lee, 세리토스 부시장 박영선, 가주하원의원 최석호 외 다수의 인사들의 축사가 있은 뒤 선포문 및 결의안 전달식을 가졌다.

2부 김영구 목사(실행위원)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재덕 목사의 기도와 유화진 권사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송병주 목사(미주한인재단 LA자문위원)가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나라와 성별을 뛰어 넘어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자매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평안을 말하셨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도 평안이었다. 그리스도인에서 평화를 빼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한인 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방향을 위해 연합 화평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금시간과 특송이 있은 후 강신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 3부 감사의 시간은 특별찬양. 출판소개. 내빈소개. 시상식 전달 등의 순서를 가진 뒤 최학량 목사(남가주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선교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세계선교교회는 MCUSA(Missionary Church USA, 927 S. Menlo Ave. LA)교단에 속해 있으며 성격이 온유하고 장년부와 EM등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인도할 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45세 이상 55세 이하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 이상으로 본 교단에 가입에 문제가 없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을 찾는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가족소개, 신앙고백과 목회비전, 학위 및 목사안수 증명서, 추천서 등이다. 제출기한은 1월 31일까지.

▲문의: (310)713-6699

사모들을 위한 온라인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목사)에서 사모들을 위한 온라인세미나를 준비했다. 본 세미나는 사모들이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조언과 지침을 내용으로 강의하며 1월 20일(수) 오후 4시 Zoom으로 열리게 된다. 선착순 50명. 강사는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송경화 박사.

▲문의: (213)288-1000 admissions@wmu.edu

감사한안인교회 신년특새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신년새벽기도회가 4-9일 김영길 원로목사의 인도아래 '깊은 신앙'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11일(월)-16일(토) 구봉주 담임목사가 '기도'라는 주제로 인도한다. 월-금 새벽 5시15분, 토 5시45분.

▲문의: (714)521-0991

온라인 베델한국학교 개강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한국학교가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펜데믹으로 휴강 중이던 베델한국학교는 2021년 봄학기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이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15명의 교사들이 LA한국교육원 주최 교사연수와 자체시스템 연수를 마쳤다.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진행된다.

▲문의: 이석희 장로(949)697-7606, 최문정 권사(949)836-7687

주님의영광교회 설립 22주년 감사예배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17일까지 릴레이 금식기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7일(주일)에는 설립 22주년 기념 감사예배로 드린다.

▲문의: (213)749-4500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곰형훈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정부, 교회 탄압 멈춰 달라"

기침, 방역 형평 요청...연쇄감염 BTJ센터 유감 표명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에 협조하는 교회를 방역 이유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침은 8일 박문수 총회장의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박 총회장은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해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에서 기침은 방역당국에 방역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지침을 내렸다. 2.5단계면 예배당에 필수 인력 20명 이내만 들어갈 수 있다. 2단계는 교회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침은 "방역당국이 정한 원칙이 있는데 이를 깨고 '전국교회는 무조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방역당국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방역당국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기침은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철, 영화관, 공연장, PC방, 식당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지만 제재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과 수요일 정기예배만 드리는 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행위"라며 "교회도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방역당국과 언론을 향해 교회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침은 "지난주 모 방송국 뉴스에서 감염경로를 설명할 때 1위는 가족지인모임, 2위는 직정이었고 교회는 여덟 번째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왜 교회만 집중 공격하냐.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했고 이는 방역을 빙자한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종교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언론과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것처럼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연쇄감염을 야기하고 방문 사실을 은폐해 방역에 혼선을 부추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사태에 대해선 유감을 드러냈다. BTJ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이 운영하고 있다.

기침은 "방역은 예외없이 전국민이 지켜야 하는데 BTJ센터는 무모하게 집회를 강행했다. 그 결과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교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더 이상 무모한 행위를 중지하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면예배 부산 교회 2곳 '폐쇄' 조치

세계로교회, 서부교회...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항의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여러 차례 고발당한 부산지역 교회 2곳이 폐쇄 조처됐다.

11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계로교회는 새벽예배를 진행했으며 예배에는 신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10일에도 세계로교회는 신도 10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개최했다. 이에 강서구는 11일 0시를 기해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측이 이날 오전 대면 예배를 진행함에 따라 지자체는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강서구는 세계로교회 측의 대면 예배 진행 문제를 지적하며 6차례 고발 조치했다.

서부교회도 전날 오전 신도 5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관할 서구청으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았다.

서부교회는 9차례에 걸친 고발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 12일 0시를 기해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폐쇄조치는 구청의 별도 해제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한편 교회 측은 구청의 폐쇄 조치 명령에 따라 가처분 소송을 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이번 행정명령은 부당함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 중지, 내부 식당 식사 중지 등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면서 "강서구의 세계로교회의 폐쇄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예자연 측은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시설 규모를 적용한 일정 비율과 형평성에 맞는 방역 원칙을 적용해준다면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다만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교회시설 폐쇄 명령 중지를 위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대, 새 교육 플랫폼 '빅 스쿨 프로젝트'

멘토링 통해 교회 내 대안학교 설립 지원

한동대(총장 장순흥)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한동대는 30일 '빅(VIC, vision in calling) 스쿨'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기독교 교육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빅 스쿨은 기독교대학 부설 대안학교 지원센터 개념이다. 전국 교회가 1년 4학기제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한다. 교사 선발 및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방학교육도 돕는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영어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고전 수업을 받고 실험 실습 토론을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동대는 교육시설과 교수 자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대학생들과 대안학교 학생을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도 운영한다. 한동대 '빅 초·중등 교육지원센터'가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맡는다. 교사양성도 이곳에서 한다. 교회는 학생을 모집하고 교사와 학부모 지원에 나서면 된다.

장순흥 총장은 "1주 1시간의 주일학교 교육으로 다음세대를 신앙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사기 말씀처럼 다음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대안학교 설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학교 학생들이 공학·농학, 이학·의학, 인문·사회, 경영·국제, 예체능 5가지 특성화된 영역에서 진로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음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한동대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대안학교 설립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도로 새해 열자" 12시간 기도 릴레이

2021 제5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 크라이' 개막

새해 첫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금식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로 새해를 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연합운동 '원 크라이'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제5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 아래 제한된 인원으로 경기도 안양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에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모두 14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섰다.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선교회 대표)를 시작으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고경환 목사(순복음원당교회), 반태효 목사(방주교회),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허요한 목사(안산제일교회), 이형노 목사(중앙감리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채드 해몬드 목사(빌리그래함전도협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황덕영 목사(평촌 새중앙교회)가 기도회 순서를 채웠다.

개회 메시지를 전한 정성진 목사는 "2020년은 온 지구촌이 전염병으로 신음했던 해"라며 "그랬던 한 해가 지나고 2021년이 밝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세상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상실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흔들리는 세상을 더 흔들고 있다"고 한 해를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며 "세상은 늘 바람이 불고 인생은 고달프지만 우리에겐 믿음이 있다. 주님이 우릴 붙드시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굳건히 설 것이라는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세상은 급변하지만 우리는 떠내려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말씀에 귀 기울여여 한다"며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성도들만 1만 명이 넘었다. 설교 말씀에 댓글창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이어갔다. 원 크라이 실행위원장 황덕영 목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자"고 말했다.

"새해 영적으로 깨어나자"

예장백석 15일까지 비대면 릴레이 기도대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코로나19 시대 영적 각성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매일 비대면으로 '신년 기도대성회' '온종일 성전기도운동' '정오 1분 기도운동'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시작해 매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도대성회는 총회 산하 7000여개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병희(서울 영안교회) 임석순(서울 한국중앙교회) 박응순(인천 주안중앙교회) 백대현(서울 광진명성교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찬양사역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가 간증했다.

양 목사는 "전염병이 유행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목회자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한다"면서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 속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목회자를 사용하신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기도대성회는 유튜브 백석총회TV로 시청할 수 있다. 최낙중(서울 해오름교회) 윤호균(용인 화광교회) 유재명(안산 빛나교회) 이정기(화성 신나는 교회) 곽인섭(서울 백석대학교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온종일 성전기도운동은 성도들이 순서를 정해 매일 1시간씩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회다.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신앙의 나태와 영적인 무감각이 교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으면서도 성도 간 비접촉을 위해 시차와 간격을 두고 기도한다.

정오 1분 기도운동도 진행된다. 매일 정오 알람을 맞춰놓고 소속 교회와 담임목사, 총회와 백석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 성도 개인의 신앙회복을 위해 1분 동안 합심 기도하는 방식이다.

기도대성회가 회개와 영적 갱신에 초점을 맞추자 유튜브 댓글에는 신앙본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정성미씨는 댓글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올 한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복음의 나팔을 불며 육의 항아리를 깨뜨려 성령의 횃불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기도대성회 실무를 맡은 유영삼 총회 교육국장은 "한국교회는 선교 130여년 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부흥성장에 취해있는 목회자들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전쟁 중에도 목숨 걸고 지켜낸 한국교회 예배가 코로나19 사태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예장백석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도의 등불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CTK 도서대상 2021년 올해의 책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떠나는 여정' '성경과 팬데믹'

크리스채너티투데이 한국판(CTK)이 'CTK 도서대상 2021년 올해의 책'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떠나는 여정'(비아토르)과 '성경과 팬데믹'(생명의말씀사)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독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쓴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떠나는 여정'은 고대 성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현대인의 영성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마르틴 하이데거, 알베르 카뮈, 한나 아렌트 등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서양 지식인을 열거하며 이들의 작품과 연구물에 남겨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취를 추적한다. CTK는 "이 책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더 끌리고 공감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날 수 있다"며 "아우구스티누스란 거인의 어깨에 올라앉아 긴 여행을 한 저자에게서 어느새 훌쩍 성장한 거인의 풍모가 느껴진다"고 평했다.

김지찬 총신대 교수가 펴낸 '성경과 팬데믹'은 성경과 교회사 속 팬데믹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정리한 책이다. 마르틴 루터가 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흑사병이 창궐한 독일 비텐베르크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CTK는 "저자는 구약학자답게 전염병이 등장하는 구약 본문을 비교·분석해 코로나19 상황에 친절히 적용했다"며 "흑사병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보여준 모습에선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했다.

CTK는 두 책과 함께 등 '제자의 삶' '교회' '역사' 등 8개 부문별 올해의 책도 발표했다. '오늘을 사는 이유'(IVP) '종교와 페미니즘 서로를 알아가다'(비아토르)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홍성사) 등 10권이 선정됐다.

세계성령운동협 대표회장 장기철 목사

2021 신년기도회 제33차 세계성령운동협 정기총회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장기철 목사)는 2021년 1월 8일에 2021 신년기도회와 고 손학풍 목사 추모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국기독교성령센터 황희자채플에서 가졌다.

김창곤 사무총장 사회로 기도 남준희 목사, 윤민자 목사, 신년사 장기철 대표회장, 신년사 강헌식 목사, 박흥일 장로가 했다.

이어서 손학풍목사 추모순서에서 추모사 안준배 이사장과 감리교신학대학동기 윤병조 목사가 증경회장 고 손학풍(1941.11.29 – 2020.12.28) 목사를 추모했다.

손학풍 목사는 세계성신클럽 창립 19인이었으며 92세계성령화대성회 준비강사단장과 대표회장을 역임해 국내외에서 성령으로 세계를 복음화 하는데 쓰임 받았다. 손학풍 목사가 인도하는 성회는 목사와 장로와 교인간에 말씀으로 화합하며 교회와 성령운동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 그는 2018년 고관절 골절로 승용차를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승용차를 팔아서 성령센터를 건축하는 현장으로 건축비를 가져와서 울면서 기도로 봉헌했다. 알츠하이머로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투병중에 2020년 12월 28일에 향년 7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기사제공: 세성협〉

'무너진 심리방역' 치유 대책 절실

하이패밀리 선정 '2020년 가정사역 10대 뉴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는 30일 '2020년 가정사역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아동학대 사건 등을 통해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확립, 가정 및 치유 사역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하이패밀리는 첫 번째 뉴스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심리방역'을 꼽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각종 신조어가 생겼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우울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코로나 레드',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을 들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일상' 실태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향숙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못지않게 심리방역 대책도 시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사유리의 비혼 출산 논란이다. 지난 11월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알려진 뒤 우리 사회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비혼 출산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생명윤리·법률·의학적 관점에서 비혼 출산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회에서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교육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다. 김 공동대표는 "온라인 수업으로 SNS 접속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자녀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는 아동학대 사건이다. 올해 천안 여행가방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김 공동대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가정 및 치유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불륜과 이혼을 소재로 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및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 코로나19로 죽음에 대한 성찰과 '나홀로족' 아동이 증가한 것 등이 주요 뉴스로 꼽혔다.

선교의 창 (16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미션의 상황화(常況化)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상은 COVID19로 인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미션을 잘할 수 있을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들 현지인들은 전통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 선교사도 자기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 따라서 선교가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을 막거나 훼손하기 쉬운 인간 문화의 틀을 벗겨야 한다. 이는 상황화의 문제이다. 상황화는 복음이 현지인에게 적실성(Relevance)있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러한 과정이 무시될 때 복음은 이질적이며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황화에 대한 개념과 대책 없는 선교는 현지 나라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1. 상황화에 대한 이해

상황화(常況化, Contextualization)란 시대와 대상 그리고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으로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합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되었지만 그 표현양식(modes)은 그렇지 않기에 시대와 대상에 맞게 상황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선교학자 브루스 니콜스(Bruce Nicholls)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선교에 필수적인 상황화 작업에 취약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복음의 순결성(the purity of the gospel)을 지키려는 열의에 차서 정작 복음을 듣는 자들의 관습, 사고 패턴, 가치체계, 행동양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치 못한 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렇다. 선교에 있어서 생명의 씨앗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발아할 수 있게 토양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2. 상황화에 대한 문제의

선교학적으로 상황화에 대한 의식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서구 식민지들은 2차 대전이 끝나자 독립국가들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 신생 독립국가들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제각기 전통문화에 근거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교회도 이러한 정치적 지각 변동 아래서 영향을 받았다. 그 동안 서구 문화와 함께 들어온 복음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WCC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진영에서는 자기 민족과 문화를 우선시 하는 정치, 사회적 복음을 제창한 것이었다. 중국의 3자 교회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상황화의 용어를 진보진영과 구별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바양 카토(Byang Kato)에 의해서 '상황화'라는 용어가 소개되었다. 이는 복음이 비기독교적 토양에 제시될 때 왜곡되거나 희석됨이 없이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교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상황화에 대한 해석은 오늘 날도 여러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3. 상황화에 대한 3가지 입장

첫째는 상황화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19세기 전후 선교사들은 옛 관습들을 이교적인 것으로 여겨 거부해버린 적이 많았다. 이러한 발상은 선교사들의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기인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자신의 문화와 동일시함으로서 다른 문화를 나쁜 것으로 판단하곤 했다. 둘째는 상황화를 수용하는 태도이다. 이 경우는 옛 관습 및 문화들을 기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전통의 관습 및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무비판적 수용은 기독교를 혼합주의에 빠지게 한다. 셋째는 상황화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옛 방식에 대한 무비판적 거부와 수용이 둘 다 선교사역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제 비판적 상황화로 선별한다. 옛 전통과 관습들이 비성경적이 아니라면 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토착화하는 흐름이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중시되어야 한다.
현지 문화를 경시하는 전투적인 선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상황화는 복음이 토착민에게 적실성 있게 전하기 위한 방편이다.

4. 성경과 상황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의 행하심이다. 그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말씀이 인간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 문화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초문화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절대적인 계시와 상대적인 문화를 구별해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과 문화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규범적 성격은 초문화적 원리들로서 절대적이다. 반면에 문화는 상대주의적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달자에게 필요한 것은 피전달자의 문화 및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 공동체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문화적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5. 상황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

언더우드를 비롯하여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한국에 소개하는 목적이 한국을 서구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한국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도박과 술, 조상제례와 무속신앙적인 요소는 배격하였지만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건물양식과 전통문화를 존중했다.

작금의 한국 선교는 어떠한가? 우려되는바 일부 선교단체와 사람들이 일방통행 식 제국주의적 서구 선교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건물, 교회이름, 예배 형태, 기도 양식 등 한국교회 문화를 주입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현지의 개척교회에 꼭 선교사의 파송교회 이름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는가? 조용한 수행의 문화인 불교 권에서 "주여 3창으로 통성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합당한가? 또한 열대나 아열대 기후 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식 새벽기도를 강조해야 하는가? 그들은 더운 날씨 때문 낮에 오침을 하고 밤에 활동을 한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환경이다. 그곳에서 한국식으로 살면 오래 버틸 수 없다. 입항순속(入鄕循俗)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로마에 가서는 그곳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라는 의미이다.

맺음 말

상황화란 단순히 한 시대의 선교전략이거나 선택상황이 아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전도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의 상황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선교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상황화는 선교를 위해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이를 경시하고 단일 문화적 접근방식은 현지에서의 복음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인 세계선교도 성질급하게 현지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십자군처럼 힘으로 밀어 붙이는 사역은 정말 제고되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역사가 막힌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어차피 선교현장에서 주인공은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드라마 예언서 (14)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학개/스가랴: 성전 재건은 임마누엘 의미 심령과 삶의 성전도 거룩하게 지으라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배경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입니다.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대하36:22-23, 라1:1-4)을 내렸고, 유다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귀환단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라2장).

2년 후(BC 536년),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라3:8-13).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건축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고(라4:1-4) 결국 바사(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위 2년(BC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십니다(라4:23-라5:2) 드디어 성전 건축공사가 재개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리오 왕 제위 6년(BC 516년)에 완공됩니다(라6:15). 성전이 무너지고(BC 586년) 꼭 70년이 지났을 때(BC 516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징계기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통치의 좌소입니다. 그런데 남방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났다'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세워지는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학개서의 내용

다리오 왕 제위 2년 6월 1일에(성전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BC 520년)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수아)에게 보내셔서 성전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학1:1). 성전건축이 16년이나 중단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성전건축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은 '판벽한 집'(좋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학1:2-6).

하나님께서는 비싼 재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학1:8). 왜냐하면 '성전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학1:13). 성전 건축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이 화려하지 못하여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학2:3-4).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시겠다는 약속은 출애굽 당시 성막을 지으실 때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학2:5).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해도 마음을 담아서 건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학2:8-9).

하나님께서는 성전건축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우리 심령과 삶의 성전도 거룩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과 나라가 행하는 일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바람과 곰팡이와 우박을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의 소산이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적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학2:10-17). 성전기초를 완성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학2:18-19).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건축을 하는 그들의 심령이 먼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성전공사를 방해하는) 여러 나라들의 왕위와 권력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들의 전차를 엎어버리며, 그들의 말과 기병들이 서로를 죽이게 할 것이다. 스룹바벨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주변 나라들 가운데 높이 세우고, 나의 대리자로 삼겠다!'(학2:20-23) 이런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힘이 나서 성전건축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내용

스가랴는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보다 2개월 늦게(다리오 왕 제위 2년 8월) 사역을 시작합니다(슥1:1).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슥1:3). 유다백성들이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슥1:4). 조상들의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조상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그가 본 여덟 개의 환상을 선포합니다. 각 환상은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과 성전재건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 빨간 말을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기간 7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슥1:7-12).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의 집(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슥1:13-17).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유다를 흩었던 네 뿔과, 그 뿔을 파괴할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슥1:18-21).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측량줄을 든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슥2:1). 측량한 대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슥2:2-13). 네 번째 환상을 통해 불에 거슬린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예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슥3:1-5).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 순금 촛대와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며, '성전건축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내가 무너뜨려서 평지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슥4:1-10).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은 각각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쌀통 속에 넣어져 천사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사악한 여인을 보여주셨고(슥5장). 여덟 번째 환상을 통해서 네 가지 다른 색 말들이 끌고 나오는 네 대의 마차를 보여주셨습니다(슥6:1-8).

이 환상들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슥8:1-8).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슥9:9-10). 이 말씀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마21:1-11). 그 분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며(슥12장),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는 샘이 되실 것입니다(슥13장).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지만 남은 백성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슥14:1-3). 과연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십니다(슥14:9).

다음 시간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다섯째 나팔의 결과(계9:1-6)찬493장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극심함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세웁니다. 그 징벌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첫째,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전갈의 권세를 행사합니다(3).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로 구원을 이루지만 여기에 세상의 죄를 벌함은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들어나게 하심을 강조합니다. 둘째, 모든 생물의 활동의 근원인 해와 공기의 이상변화로 어둡게 됩니다(3). 하나님의 징벌은 근본을 해치는 것임으로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마에 인 없는 자에게만 징벌이 따릅니다(4).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게 하는 것은 지옥형벌을 생각케 합니다. 이 땅에서 죄인의 징벌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 땅을 진동케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으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화 황충이의 모습(계9:7-11)찬390장

전갈의 권세를 가진 심판자의 모양은 황충이의 모습입니다. 첫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7-8). 요엘시대의 심판 수행자를 황충이, 메뚜기, 팟종이로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강력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금관을 쓴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과 여자 머리탈과 사자의 이빨을 가진 모습은 잔인하고 교활하고 오만한 성격을 보입니다. 둘째, 전쟁터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말처럼 신속하게 심판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9-10). 셋째, 전갈꼬리처리 쏘는 화살로서 제한된 시간에 심판을 단행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10-11). 바로 이 군대를 이끄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곧 사탄은 불택자를 괴롭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아래서 수행되는 일입니다. 마귀가 활개치는 우리시대에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수 여섯째 나팔 재앙의 결과(계9:12-17)찬337장

일곱인을 뗄 때 생기는 현상은 일곱 나팔을 불 때 반복적이면서 더 발전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한 음성이 다스립니다(13). 하나님 앞의 금제단의 네 뿔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 곳에서 나온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속죄의 피의 효능으로만 효력을 발함을 상징들이 보여줍니다. 둘째, 네 천사의 역할은 종말의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14-15).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수행하는 심판은 보좌에 계신 심판주의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절대성을 가집니다. 정한 시간에 사람 1/3을 죽이는 처참한 징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때일지도 모르니 언제나 죄를 두려워하고 참 회개하는 삶을 힘써야합니다.

목 마병대에 탄 자의 심판의 성격(계9:18-19)찬161장

여기 마병대의 모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이것은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는 징벌입니다(16). 여기 천사의 활동이 2만의 마병대를 통해 나타남이 이것을 암시합니다.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전쟁으로 죽은 자는 이 심판과 관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병대에 탄 자의 모습은 무엇을 암시합니까?(17) 여기 불빛, 자줏빛 유황빛을 내는 호심경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을 암시함이고 사자머리를 한 말과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는 입의 모습은 심판으로 일어나는 지옥환경을 생각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음부의 권세보다 더 강한 절대성을 가집니다(18-19). 이 종말시대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잘 사용합시다.

금 회개치 않는 재앙(계9:20-21)찬518장

이런 재앙 속에도 살아남은 자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첫째, 회개하지 못합니다(20). 1/3의 죽음의 원인이 죄임을 알지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화인맞아 강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참되이 고백하는 것은 복입니다. 주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소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요일1:9). 둘째, 우상을 섬기는 자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귀신과 온갖 우상에 자기의 삶을 바친 마음이 되면 생명의 회개로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악행을 돌이킬 줄 모릅니다(21).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자극적인 죄악입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토 다른 천사의 심판(계10:1-4)찬358장

일곱 나팔 재앙에 더해진 심판은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 수행됐습니다. 첫째, 그 천사는 전능자의 모습을 띄고 나타났습니다(1). 마귀의 군대를 통해 불택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지만 더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를 통해 더 큰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 밝히 세우셨습니다. 둘째, 그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것과 바다와 땅을 밟은 모습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2). 천사로 표현된 심판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셋째, 그의 호령에 일곱 우레가 발하는 것은 절대자의 뜻을 세우기 위해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심은 세상의 구원과 심판이 그 손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3-4). 내 안에 절대주권자가 내주하심을 찬양하며 겸손히 복종합시다.

알기쉬운 IT칼럼

자율주행 자동차(1)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눈은 산에만 내리는 것이기에 이런 함박눈을 맞은 것은 산행할 때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쉴터에 같이 있는 사이판 선교사님 가족들은 더욱 눈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라 온 가족이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합니다. 사진도 찍고 눈도 뭉쳐 던져보기도 하고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곧 현실도 깨닫게 됩니다. 내일 기온이 영하 15도가 된다니, 눈을 치워야 하는데 치우면 또 쌓이고를 반복하니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군대 졸병 시절 눈이 내렸습니다. 혼자 낭만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숨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눈을 치웠기 때문이고, 그 후 눈이 내리면 제 입에서도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낭만의 뒷모습은 마치 물 위를 멋지게 떠가는 백조의 물 아래 발놀림 같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를 돕는 이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멋진 이가 '나'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뒤에서 돕는 Staff이 되고 싶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뒤에서 돕는, 그래서 그들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슬아생 잡지입니다. 슬아생으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그 멋진 이가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소유의 패러다임 바꿔...공유개념으로 확산

2020년 전 세계의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지 못할 한해일 것이 분명한데 그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COVID19로 많은 분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안타깝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삶을 재조명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간다는 의미에서는 유익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당하던 그 결과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제 삶에서 수없이 경험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낙담하고만 있다면 정말 코로나에 지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이 글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2020년 가장 기대했던 것은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원년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를 코로나가 덮어버렸고 그로 인해 잠시 Delay 되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상당수준에 올라있고 대부분의 어려움을 극복한 단계까지 실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와 같은 차는 일부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혼다는 내년 3월 3단계의 자율 차를 판매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곧 닥칠 미래! 만일 거기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대비하고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예측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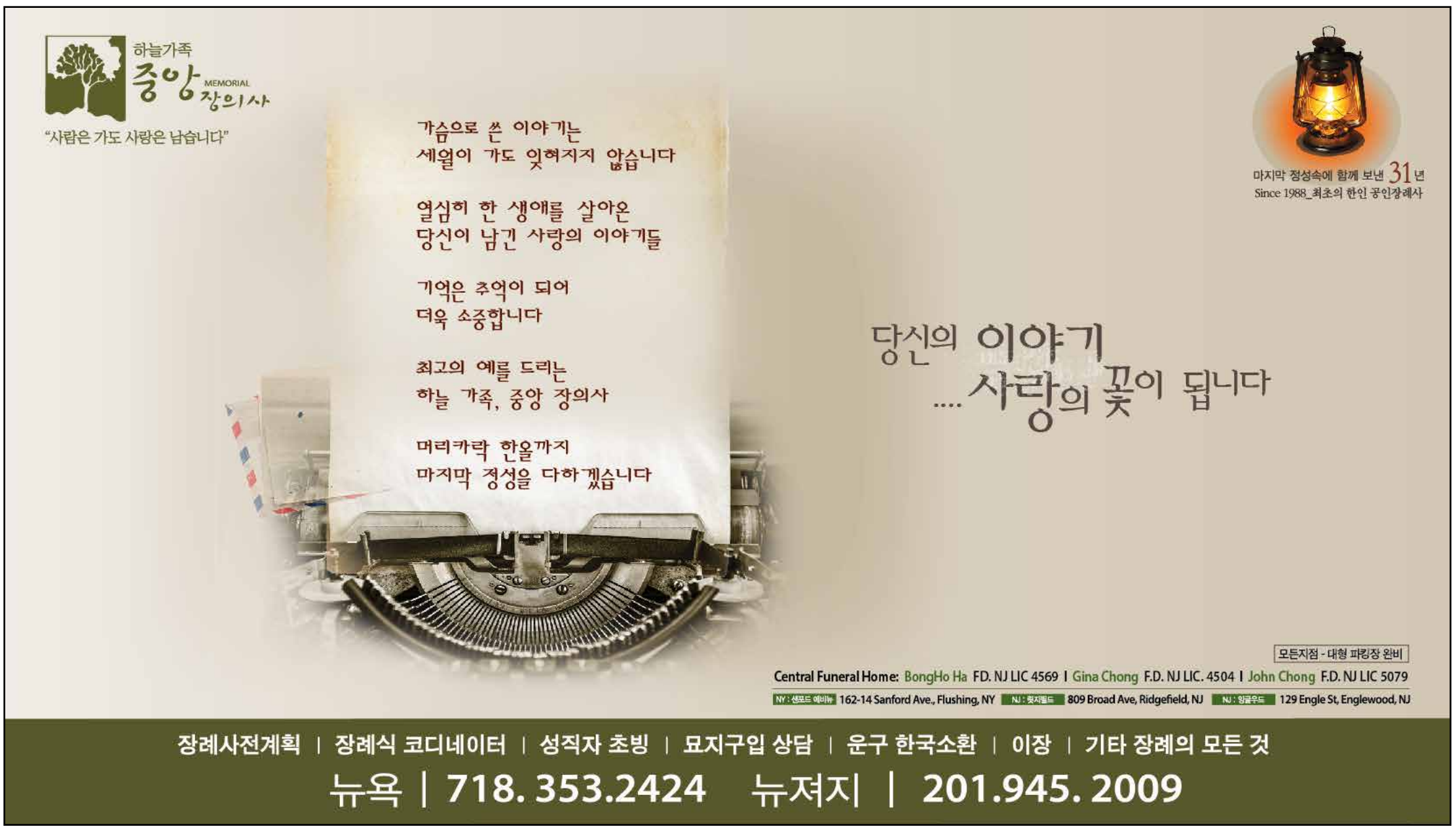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소유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즉 Buying에서 Sharing으로 바뀝니다. 초기에는 자율주행차를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지만 곧 소유가 아닌 공유개념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딘가에 주차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기능이란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것이 Sharing으로 정착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실어 원하는 장소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입니다. 즉 우리가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나는 사용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면 될 것이고 이런 방법은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비도, 주유도 하지 않음으로 엄청나게 편리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바꿀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예. 여자들은 화장도 할 것이고 잠을 자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밥을 먹고, 학생들은 숙제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차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처한다면 꽤 큰돈을 벌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모양도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을 일주하며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일은 혼자 그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잠을 자기 위해 호텔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바꿀까요? 예, 그렇습니다. 차에서 자게 될 것이고 다음 목적지까지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호텔 대신 샤워를 한다든가 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겨 그곳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차는 침실의 기능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요.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한 자들만이 그 달콤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jyoon7231@gmail.com



세기언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송정임(St. John’s UMC, 버지니아) / “말 그릇”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처럼 그릇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을까?

손님을 초대하고,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맞지 않은 그릇에 대접하면, 모임을 망치고, 초대한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서로 오해와 상처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릇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그릇, 특히 작가가 얘기하는 말 그릇은 사람 나 자신이며, 나의 말 그릇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그릇들처럼 담아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울수록 더 커지는 그릇이 된다고 한다.

작가는 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가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한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깊으면 담은 말들이 쉽게 새어 나가지 않고, 넓은 그릇에서 필요한 말을 잘 골라낼 수 있다.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며, 말실수도 많아진다. 이것은 단순한 말기술의 차이가 아니다. 살면서 만들어진 ‘말 그릇’의 차이 때문이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의 잘못된 그릇 사용의 경우처럼 우리의 말 그릇을 맞게 사용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와 불쾌감을 주고, 더 나아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통해 나를 확인하고,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고 한다. 말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해 잘 표현한 재치 있는 격언이다.

외향적이고 유쾌한 성격의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교사인 직업으로도 사모인 교회사역을 통해서도 다양한 나이와 직업의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하고, 만나면 항상 즐겁다고 얘기해 준다. 하지만 이렇게 즐겁고, 좋은 만남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항상 후회하는 것이 오늘도 또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과 정작 만남을 통해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할 말들을 다 못하고 왔다는 것이다. 하하 호호 만남의 순간은 즐거웠지만 서로의 비어있는 말 그릇이 부딪히며 소리만 요란할 뿐 담아지는 것은 없는 만남과 대화의 반복이었던 것이다. 빈 수레로 요란한 나의 말 그릇을 다시 만질 수 있는 귀한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긴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통해 "말은 당신을 드러내며 필요한 말을 제 때하고, 후회할 말을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로 작가는 대화에서 느끼는 후회와 부끄러운 나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책을 통한 작가의 어루만짐을 통해 나의 말 그릇이 깊어지고, 다듬어 이 책은 우리에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평상시 사용하던 나의 말의 잘못된 점과 대화를 바꾸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화방법을 통해 내가 성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되어있다. 1부에서는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 말 그릇의 의미를 알려주고 나의 말에 나의 모습이 담겨있음을 얘기한다. 2부에서는 내면의 말 그릇 다듬기로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 살펴봐야 할 개인의 감정과 공식, 습관을 알려준다.

특별히 말할 때 진짜 감정을 담아 말해야 하는 중요성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나의 잘못된 말 습관을 찾고, 고치는 중요성을 얘기한다. 차례대로 책을 읽다보면, 평소 나의 말이 무엇이 문제였고, 나의 말 그릇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3부와 4부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기술에 대해 알려준다, 3부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을 잘하기 전에 먼저 잘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경청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고개를 끄떡이며 참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고픈 사실, 감정, 핵심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4부에서는 말 그릇이 다듬어져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 기술’을 소개한다.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말하기, 그 말하는 기술이 매끄럽지 않으면 마음의 길도 막히고 서로 오해를 만들게 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며, 나와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나의 말에 책임을 지는 관계의 3가지 법칙들을 알려준다. 첫째, 나를 사랑하고, 둘째 각자의 진실이 다름을 인정하고, 셋째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적당한 경계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3가지 관계의 법칙을 통해 나의 말을 더 비워내어 말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음을 얘기한다.

2020년 봄부터 전 세계가 뜻하지 않은 코비드19 바이러스 출현으로 우리 모두 태어나서 처음 살아보는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까지 백신도, 완벽한 치료제와 방법도 못 찾은 현실 속에 정부와 사회는 ‘자가격리’라는 최소대면의 방법을 택함으로,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본능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본능을 억제하며 재택근무, 온라인스쿨이 안전하게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모두 각자 바쁘게 살던 가족들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우리가족도 코비드19 전에는 남편과 나는 각각 교회사역과 직장, 아이들은 학교와 방과 후 활동으로 온 가족이 저녁시간이 되어서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대화 또한 하루의 안부와 정리를 하는 단순하고, 단조로운 대화였다.

처음에는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는 그 사이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과 대화들로 모두 즐거워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로의 잘못된 습관과 단점들을 보게 되었다. 어느새 그런 모습들을 대화 중에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었고 가족들 사이에 성숙하지 못한 대화법으로 왜 그렇게 말해? 꼭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언성이 높아지고 대화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며 대화와 함께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게 되었다. 나도 나의 잘못된 모습보다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나의 다듬어지지 못한 말은 가족들에게 잔소리가 되어 모두에게 결국엔 상처가 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말로 서로를 원망하고, 오해하고, 상처를 주는 것일까? 너무 답답했던 나는 책을 읽고, 나의 말의 방법과 습관이 잘못됨을 알았고, 저자가 말한 모든 대화법을 담을 수는 없지만 지침서가 되어 나를 붙잡아 주고 말을 통해 나타나는 내 마음의 그릇을 다시 빚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내가 노력한 부분은 내가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기에 집중했고, 노력했다. 아이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항상 아이의 행동이나, 실수를 지적했던 나의 말 습관을 반성하고, 끝까지 얘기를 듣고, 저자가 책에서 알려준 대화의 방법을 적용하며,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아이와 함께 상의하였다.

나의 말 그릇인 나의 마음의 그릇이 먼저 다듬어지고, 변하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잘 마무리 된 대화들을 통해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당연히 가족들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제는 무엇인가 고민이나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막내아들이 먼저 “모두들 모이세요, 다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하고 온 가족을 거실로 모이게 한다. 결국 대화의 변화는 각 방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었고, 팬데믹 기간 중 가족들의 깊고, 기쁜 대화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자, 제자인 베드로가 알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청한다.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통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얘기하시며, 말을 통해 되어지는 악행들과 죄를 얘기해주신다. 작가가 책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던 나의 말은 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시고 계셨는데, 어리석은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안정되고 팬데믹이 끝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벗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 날, 만남과 대화를 그리워하고, 기다린 만큼 나는 분명히 다듬어진 ‘말 그릇’으로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깊은 말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아 갈 것이다. 나의 말 그릇을 통해 사람을 담아내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한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에는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마더 테레사).

선교 편지

아이티

오늘은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난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1년 전인 2010년 1월 12일 오후5시에 발생한 대지진은 25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아이티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전세계에 이 비참한 나라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11년이 지나,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아이티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살기 어렵고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굶고 아픕니다.

고아들을 만난 지 13년이 되는데 배부르고 건강하길 바라는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샬롬고아원 쟌 원장이 긴급히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고 몇몇 고아원에는 열병과 기침이 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모레(14일) 아이티에 갈 예정인데 15일 날은 또 전국적인 데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2월 7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선거를 못하고 있어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데모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심각한 폭력적 데모를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도 15일 일정을 14일로 앞당기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검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석유를 수입하지 못해서 주유소도 문을 닫고 개스를 구할 수가 없어 길에 차들이 드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식량과 의약품 나눔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아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데모가 진정되어 학교 교육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티의 경제 사회 정치가 바르게 진정되도록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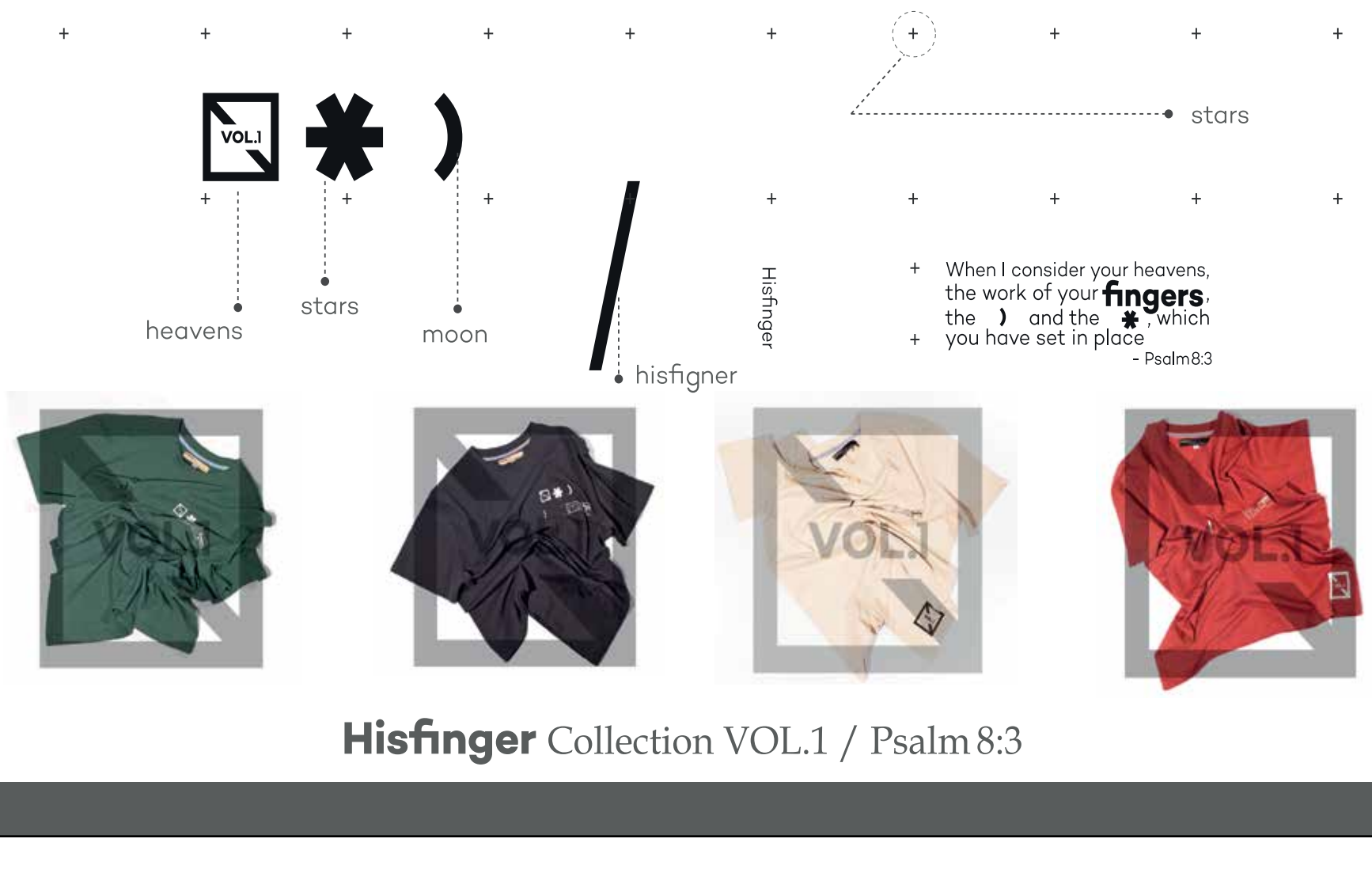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코너 인터내셔널 조항석 목사 드림

chohenry01@gmail.com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모든 교인이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Churchanswers.com, 톰 S. 레이너 팬데믹시대에 유념하고 목양할 교인 5가지 유형 제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올까요? 얼마나 돌아올까요?" 기나긴 팬데믹(pandemic) 시대를 살며 모든 교회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다.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 Center)를 섬겼던 톰 S. 레이너(Tom. S. Rainer)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커뮤니티(churchanswers.com) 칼럼에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나의 반응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팬데믹 이전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 모두가 다시 예배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레이너는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과 일회적인 대화를 나눴을 때 '교인 중 20-34%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라면서 "참석률의 관점에서, 만약 팬데믹 이전 200명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20%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느낀 이후 모두가 돌아와도 160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소그룹(또는 교회) 공동체가 팬데믹 시대에 유념하고 목양할 교인 유형은 무엇일까? 레이너는 이들이 서로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며 5가지 유형을 제시해준다(Five Types of Church Members Who Will Not Return after the Quarantine).

1. 출석률이 줄어든 교인들

이 교인들은 팬데믹 시대 이전에는 한 달에 4번 예배에 출석하던 교인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정부 방침과 자발적 자가격리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빈도가 낮아졌다. 급기야 현재는 한 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체는 한 때 성실히 출석하던 성도가 장기 결석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2. 연결이 끊긴 교인들

만약 이 교인들이 교회 소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확률은 높다. 하지만 예배만 드리던 교인이라면 참석률은 매우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교회와 연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예배와 모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것을 기회로 삼을 교인들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 같은 현실이 개인적 소그룹 참석을 강조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게 해야 한다.

교회 영광과 교인의 구원 위해 교회공동체 사용하신다는 신념 가져야
안일하고 게으른 태도 버리고 소그룹에 맡기신 영혼 온전히 감당해야

3. 교회 외에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교인들

이 교인들은 예배 참석을 다른 활동과 동등한 혹은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궂은 날씨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속한 동호회 참석이나 취미활동은 아주 열심히 한다. 팬데믹 시대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헌신은 낮은 우선순위였고,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들이 원래 그러한 교인들이었다는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4. 교회에 비판적인 교인들

이 교인들은 항상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들은 아직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작금의 상황을 보며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기회 삼아 교회비판에 열을 가하며,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넓은 마음으로 이들마저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벧전 3:15-16)해야 한다.

5. '문화적 기독교인'인 교인들

마지막으로 이 교인들은 팬데믹 시대 이전에도 감소하는 유형 중에 일부였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들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출석에 대해 갖는 문화적 기대는 매우 적다. 이 같은 문화적 기독교인은 팬데믹 기간, 예배 출석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게 됐고, 이들에게는 예배에 다시 참석하는 일은 큰 이슈가 아니게 됐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들도 목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결국 소그룹(또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지도자를 붙드시며, 교회 영광과 교인의 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런 유형의 교인을 유념해 목양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든지, 어느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안일하고 게으른 태도는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소그룹에 맡기신 영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손목굴 증후군

현대에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직업에 따른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도 발전해 왔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40대 후반의 김 모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약 3개월 전부터 양손에 힘이 적어지고 가끔 저려오는 것을 느끼다가 최근에는 잠자던 중에도 손이 저려서 잠을 깰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다. 손바닥이 저릴 때마다 손을 털어주면 증상이 사라졌고 가끔 증상이 있을 때마다 팔과 어깨로 통증이 전달되는 것도 느꼈다.

김 씨는 과거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가족 병력도 없었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고 가끔 와인을 즐기는 편이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골프를 치는데 최근에는 손이 저려서 쉬고 있다.

김 씨는 중풍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뇌 사진도 찍고 경추 부위의 정밀검사도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증상은 최근 2주 동안 점점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정도였다. 김 씨를 검진한 결과,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고 이학적 검사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정중신경median nerve를 자극했을 때 저린 통증이 오는 자극검사가 양성이었고, 저린 증상이 새끼손가락에는 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김 씨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목굴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스프린터를 처방하고 증상 완화 치료를 했다. 치료 후 김 씨는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통계에 따르면 손목굴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미국인의 약 4%에서 진단된다. 여성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일 신경 질환으로는 가장 흔하다. 원인은 정중신경을 감싸는 내막의 압력 때문에 신경을 눌러서 생기며,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는 직종에서 자주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다가 손이 저려 잠이 깰 정도

많은 경우 위의 증례처럼 병력이나 이학적 검사로 잠정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근전도 검사나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손이 저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초기에는 특수 스프린터나 운동치료로 증상의 완화를 볼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국소주사나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약 3분의 1의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병이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한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장거리 트럭 운전사와 같이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손목을 감싸줄 수 있는 특수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또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일단 진단이 나오면 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문의:213-383-9388

뉴욕일원 노회..

〈10면으로 계속〉

코로나 팬데믹에서 본질을 잡는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들로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며 구약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재건을 한 일과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해 흩어졌으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역사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물위를 걷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마무리했다.

〈유원정 기자〉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졸업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1) 구약주해 : 창22:1~19
(2) 신약주해 : 마5:1~12
(3) 논문제목 :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4) 설교본문 : 약5:7~11 / 암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겉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서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대흥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응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 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 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cpastor@gmail.com

기타문의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목사 (Rev. John Y, Song) kapcpastor@g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조문휘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